이병규

목 차

사회 : 문 병 학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

1. 1894년 동학농민군 희생자와 집단매장지
신 영 우/충북대학교 교수

2. 원평 구미란전적지의 동학농민군 매장지 실태
최 고 원/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상임이사

3. 동학농민군 유해발굴의 추진현황과 의미
우 종 윤/한국선사문화연구원장

토론 : 최 성 미 (임실문화원장)
조 광 환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1894년 동학농민군 희생자와 집단매장지

신 영 우(충북대)

< 차 례 >

1. 머리말
2. 1차봉기의 주요 전투
3. 일본군 보고문서와 관군 기록의 동학농민군 희생자
4. 주요 지역 전투와 동학농민군 희생자의 집단매장지
5. 맺는 말 - 집단매장지 조사

1. 머리말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당시 희생된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 정확한 수는 알 수가 없다. 더 명확히 말하면 정확한 수는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관군과 민보군 희생자도 있었지만 패배한 동학농민군의 희생자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런데 그 수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반면 일본군이 죽은 수는 보고문서에 기재되어 전해진다.[1] 부산에서 서울까지 연결된 병참부의 주둔병은 통역과 고용인까지 포함해서 9명이 전사했고, 또 9명이 부상했다.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증파된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는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삼남 일대를 순회하였지만 연산전투에서 단 1명만 전사했을 뿐이다.[2]

동학농민군이 1차봉기 기간에 관군에게 승리한 전투는 황토현전투와 장성전투였다. 그리

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73~92, [東學黨 征討 功勞者에 대한 論功建議의 件]

2) 병참부 주둔병 중 東學黨 때문에 戰死한 자(9명) : 태봉병참부 騎兵大尉 竹內盛雅, 낙동병참부 步兵一等軍曹 山村能熊次 上等兵 片山嘉一郎 一等兵 久保岩吉 通辯 上野捨次郎 雇 倉庫守衛 濱田于雄, 가흥병참부 步兵上等兵 酒向好五郎 憲兵上等兵 南海爲三郎, 이천병참부 步兵一等軍曹 井上楠彌太. 東學黨 때문에 부상한 자(9명) : 부산병참부 步兵上等兵 高橋淺吉 一等兵 岡野由太郎 一等兵 小野山丑太, 낙동병참부 步兵二等兵 久保佐太郎, 가흥병참부 步兵少尉 原田常入 步兵上等兵 栗田梅三郎 上等兵 伊藤正作 二等兵 井上敬次郎 二等兵 宮島寅吉. 후비보병 제19대대(1명) : 3중대 上等兵 杉野寅吉(연산전투)

고 대개의 경우 여러 군현의 읍내 관아를 점거할 때에는 싸움이 없이 밀고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2차봉기 후 민보군이 결성되고 일본군과 경군이 파견된 이후에는 여러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2차봉기 후에 벌어진 전투 결과는 대개 동학농민군의 패배로 끝이 났고, 그 결과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맞서 싸운 전투는 일방적인 학살극으로 종결되었다. 전투에 승리해서 일본군이 후퇴한 지역에서도 희생당한 동학농민군의 수는 매우 많았다. 가장 커다란 희생은 우금치전투와 같은 큰 전투에서 일어났다. 그렇지만 그 수가 희생된 동학농민군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할 수도 없다. 계속해서 벌어진 논산전투와 금구 원평의 구미란 전투 그리고 태인전투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동학농민군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지역은 전라도 남단의 장흥 해남 강진 나주 일대였다. 일본군과 관군은 이 일대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으며 학살을 자행해서 일어난 결과였다.

동학농민군 희생자들의 시신은 가족들이 아는 경우 찾아가서 매장하였다. 평상시와 같이 장례를 지냈다는 사례는 찾지 못하였다. 가족이 찾아가지 않은 시신들은 그 지역 관아나 마을에서 매장하였다. 관아에서는 주민들을 부역시켜서 시신을 매장하였는데 여러 지역에 집단매장지가 만들어졌다.

전투장소에서 시신을 찾지 못했거나 어디에서 죽은 지 알지 못하는 동학농민군은 가족들이 가묘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 선산에 봉분을 갖춘 묘소가 조성되었으나 빈 무덤이었다. 체포된 후 처형한 사람들의 시신은 일가가 남모르게 운반해서 매장하였다. 그래서 산소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였다. 체포를 모면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피신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묻혔다.

집단매장지에는 동학농민군이 패배자와 반역자로서 묻혔기 때문에 표식도 만들지 않았다. 당시에는 집단매장지가 인근 사람들이 잘 아는 꺼려하는 장소였으나 2세대에서 3세대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정확한 장소와 사연도 모르게 되었다. 심지어 동학농민군 집단매장지가 의병 무덤으로 전해지는 의심이 드는 곳도 나오게 되었다.

올해 동학농민혁명 116주년이 되었으나 선양과 연구사업은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3월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사업으로 연구와 함께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을 펼치도록 하고 있으나 동학농민군 집단매장지에 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은 1894년에서 1895년 초에 이르는 기간에 동학농민군이 희생되어 집단매장지가 조성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추정하면서 조사 발굴에 관한 시론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다.[3)]

2. 1차봉기의 주요 전투

1차봉기시 벌어진 주요 전투는 다음과 같다. 이 시기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 희생자의 수는 대략 기록해서 잘 알 수가 없다. 회덕봉기는 접전이 없이 끝나서 희생자 기록이 없다.

1894년

---

3) 발제 준비기간이 짧은 까닭에 문제제기 수준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5월 11일(4월 7일) 황토현전투
5월 27일(4월 23일) 장성 황룡촌전투
6월 1일(4월 28일) - 6월 6일(5월 3일) 완산전투(3차) 수백명

『嶺上日記』 갑오 4월의 황토현전투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본도의 동적들이 고부 頭僧山에 모였다. 전라감사가 裨將 李某(이경호)를 보내, 군사 수백명과 열읍의 속오군을 거느리고 가서 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산 아래에 도착하자 날이 저물었는데 밤에 적이 세 산봉우리에 불을 피워 경계하였다. 얼마 뒤에 적들이 두 봉우리의 불을 끄고 중간 봉우리 하나에서만 불을 피워 남겨 두었다. 관군이 마침내 적이 잠을 잔다고 여겨 한밤중에 군사를 출동시켜 두 봉우리 아래에 이르렀지만, 사방이 고요할 뿐이었다. 그런데 적병이 두 봉우리 아래에서 나와 관군의 후미를 끊고 중간 봉우리의 적들이 관군의 앞부분을 공격하였다. 전주 관군들이 마침내 그 계략에 빠져 죽은 자가 산을 뒤덮을 정도였다. 李裨將은 죽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달아나 되돌아왔다. 우리 이웃마을 사람 중에 속오군으로 전투에 참여한 자가 8명이었다. 적에게 죽은 자는 1명이고 살아 돌아온 자는 7명인데, 모두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그 전투의 전말을 위와 같이 말하였다. 뒤에 한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말하기를, '쌓인 시신 속에서 적을 피해 돌아왔다'고 하였다."

『兩湖招討謄錄』의 장성전투 기록은 다음과 같다.[4]
"우리 군사가 장성(長城)의 월평(月坪)에 도착하자 저들 또한 마침 황룡촌(黃龍村)에 이르러, 차츰 서로 접전하여 한 바탕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극로백(克虜伯)을 한 번 발사하자 저들 중 맞아 죽은 자가 약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10,000여 명은 악에 바쳐 들고 일어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돌격하여, 30여 리를 쫓아오는데 저들은 많고 우리는 수가 적은 관계로 우리 군사는 지쳐 쓰러지면서 창황하게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쫓겨올 때에 대관 이학승이 분발하여 칼을 들고 뒤에서 홀로 싸우다가 병정 5명과 함께 저들에게 살해당하였다고 하니, 참혹하고 놀라움이 막심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약사』에는 완산전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완산전투의 첫 싸움에서 동학농민군은 적잖은 손실을 입고 패배하고 말았다. 29일에는 농민군이 북문을 열고 나와 황학대를 공격하였으나 경군의 화포공격에 백여 명의 희생자를 내고 물러났다. 5월 1일 농민군이 남문을 열고 경군을 공격했으나 이때에도 경군의 화포공격으로 300여명의 희생자를 냈다. 2일에도 경군은 전주성을 향해 포격을 퍼부었고, 이에 농민군은 서문을 열고 나와 용머리고개의 경군을 공격했으나 또다시 화포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채 물러났다. 전주성을 배경으로 한 농민군과 경군의 최대 격전은 5월 3일에 벌어졌다. 농민군은 이날 아침 10시경부터 서문과 북문으로부터 돌진하여 사마교(司馬橋:다가교)와 부근의 하류를 건너 유연대(油然垈:기전여고 북서쪽 최고봉)를 공격하였다. 농민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은 유연대 부군의 경군은 남쪽으로 달아났다. 농민군은 이를 추적하여 다가산을 점령한 후 다시 남진하여 용머리고개를 가로질러 경군 본영이 있는 곳까지 육박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은 여기에서 경군 본영으로부터 대포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아 용장 김순명, 아기장수 이복용을 비롯하여 200~500명에 이르는 전사자를 내고 성안으로 물러났다." 동학농

4) 光緖二十年四月二十四日 親軍壯衛營正領官兩湖招討使臣洪啓薰謹啓爲相考事

민혁명기념사업회편, 『동학농민혁명약사』 http://www.donghak.ne.kr/donghak/

3. 일본군 보고문서와 관군 기록의 동학농민군 희생자

2차 봉기 후 진압군의 동학농민군 관련 기록은 전과를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에 나와 있다. 가장 많은 내용이 담긴 일본군의 보고문서는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과 6권, 관군의 기록은 『巡撫先鋒陣謄錄』과 『兩湖右先鋒日記』 등이다. 이 기록에 의거하면 2차 봉기 후 각지의 동학농민군 학살자의 수를 추정할 수 있다.[5]

그러나 동학농민군 희생자의 수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 일본군은 의도적으로 수를 줄인 사례가 많고, 관군의 보고는 통계가 명확하지 않다.

수십이나 수백 명 또는 '다수 죽음' '죽인 자 많음' '눈에 걸리고 발에 채임'은 숫자로 환산될 수 없는 것이고, 가장 많은 희생된 우금치 전투의 희생자는 빠진 것이다. 동학농민군 진압에 참가한 일본군 부대별로 구분해서 나누었다.[6]

각지에서 희생된 동학농민군의 수는 매우 많지만 아직 그 유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사한 보고서조차 없다.

(1) 후비보병 제19대대
(전사 2,488명+우금치 희생자) (포로 152명+수백명)
① 서로 2중대 모리오(森尾雅一)
11월 21일(지대) 勝戰谷전투 : 전사 3명
11월 22일 公州전투 : 전사 6명
11월 25일 洪州전투 : 전사 200여명
(홍주성 내 포로 수백명)
12월 4~5일 公州전투 : 전사 37명
판치 능치 효포 웅치(등록-선봉진) 다수 죽음 『巡撫先鋒陣謄錄』 11월 10일 "賊多被殺" "併力?殺" "數千匪類 --砲殺擊退"

12월 8일 능치 : 전사 4, 5명 (등록-경리청)
12월 10일 노성 : 체포 즉시 총살, 죽인 자 많음 『巡撫先鋒陣謄錄』 11월 17일 "所殺甚多"

12월 11일 論山전투 : 전사 20명
(등록-장위영) 시신과 머리가 눈에 걸리고 발에 채임
論山 노성 : (등록-통위영) 포살자 익사자 300명 이상
恩津(주한일본공사관기록-장위영) 포로 11~12명
12월 12일 恩津 墨洞(등록-장위영) 7명 처형

---

5) 이 장은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편, 『제노사이드와 학살』, 경인문화사, 2009에 수록된 졸고, 「1894년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에 의거한 것이다.
6)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 규모 이 절에 나오는 날짜는 양력이다. 일본군의 전투보고를 중심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양력을 기준으로 정리하였고 관군의 기록도 편의에 따라 양력으로 환산하였다.

12월 17일　　恩津 유구 도집강 등 20명 일본군 부대로 압송

② 본부와 중로 3중대　미나미(南) 소좌
11월 23일　　文義 至明전투 : 전사 7명
11월 26일(지대) 增若전투 : 전사 30여명(승정원일기-교도중대) 전사 300명
처형 9명, 포로 3명
12월 1일(지대) 石城전투 : 전사 3명 (등록-교도중대) 40여명
12월 4일(지대) 陽山전투 : 전사 40명 (등록-교도중대) 50여명
12월 5일(지대) 錦山전투 : 전사 6명 (등록-교도중대) 50여명
12월 10일　　連山전투 : 전사 50명
(지대) 農山전투 : 전사 13명
龍潭 照林전투 : (등록-교도중대) 30여명
(등록-교도중대) 6명 총살
12월 12일　　鎭安전투 : 전사 18명 (등록-교도중대) 수십 명
12월 13일　　栗谷전투 : 전사 11명 (등록-교도중대) 30여명
12월 14일　　高山전투 : 전사 16명 (등록-교도중대) 수백 명
(등록-교도중대) 3명 총살
2월 18일　　大芚山전투 : 전사 25명

③ 본부와 2, 3중대
12월 21일　　院坪전투 : (등록-교도중대) 전사 37명
12월 23일　　泰仁전투 : (등록-선봉진) 전사 40명, 포로 50여명

④ 제19대대
12월 27일　　任實 : 5명 총살
12월 28일　　樊樹驛 : 1명 총살
1월 8일(지대)　長興 朝陽전투 : 전사 20여명
1월 10일(지대)　長興 석대들전투 : (등록-통위영) 전사 200여명
1월 11일(지대)　長興 玉山전투 : (등록-교도중대) 전사 100여명, 포로 20여명(10여명 총살)
1월 14일(지대)　康津 : (등록-교도중대) 15명 총살

⑤ 서남 해안 일대의 수색·체포·학살 (전사 2,000명) (포로 46명 + 수십 명)
해남 : 250명
강진 : 320명
장흥 : 300명
나주 : 230명

보성 : (등록-보성군수 보고) 30여명 총살, 수십 명 체포
함평 : 30 ~ 50명 (등록-좌선봉진 보고) 5일 9명, 6일 5명 총살. 6명 체포. 8일 2명 총살.
무안 : 30 ~ 50명 (등록-좌선봉진 보고) 30여명 처형, 40명 체포

영암 : 30 ~ 50명
광주 : 30 ~ 50명
능주 : 30 ~ 50명
담양 : 30 ~ 50명
순창 : 30 ~ 50명
운봉 : 30 ~ 50명
장성 : 30 ~ 50명
영광 : 30 ~ 50명
무장 : 30 ~ 50명
낙안 : (등록-낙안군수) 2명 효수, 27명 처형
구례 : (등록-구례현감) 2명 총살, 7명 처형
순천 : (등록-순천부 공형) 150명(수백 명) 총살
흥덕 : (등록-흥덕현감) 1명(손화중 처남) 처형
진도 : (등록-진도부사) 4명 처형

⑥ 군로실측대 호위병 구와바라(桑原榮次郞) 소위 (전사 321명, 상주 민보군 2,700명)
12월 7일 知面村전투 : 전사 1명
12월 9일 淸州전투 : 전사 20여명 (등록-日兵·청주병) 살상자 100여명
1월 13일 鍾谷전투 : 전사 300여명 (토비대략-상주병) 2,593명 이상 『討匪大略』, " 爲亂砲所斃者二千二百餘人 夜戰所殺 爲三百九十三人"

(2) 후비보병 제6연대 제2대대 (전사 116명) (포로 121명 + 수십 명)
① 제6중대(인천수비대) 야마무라 타다마사(山村忠正) 대위
11월 12일 괴산 1명 총살, 6명 타살
11월 13일 보은 2명 포로
11월 14일 청산 몇 명 포로
11월 15일 괴산 2명 총파(銃把)로 타살
12월 10일 해미 : 수십명 포로 홍주성 호송
12월 11일 서산 : 30명 총대로 타살, 100명 포로,

② 황해도 파견 일본군 - 후비보병 제6연대 제2대대
11월 27일 載寧전투 : 전사 15명, 포로 5명
12월 3일 平山전투 : 전사 10여명
12월 15일 해주 : 11명 포로 처형, 포로 2명 압송
12월 19일 해주전투 : 전사 12명, 포로 9명
12월 23일 해주 서부전투 : 전사 15명, 포로 2명

● 劍水수비대
1895년 1월 6일 瑞興 興水院전투 : 전사 2명, 1명 포로

● 黃州병참부
1895년 1월 7일 正方山城전투 : 전사 5명
1월 8일 銀波전투 : 전사 7명

③ 筑波艦 육전대 (전사 34명) (포로 2명)
12월 22일 좌수영 부근 德陽里 전투 : 전사 2명, 1명 생포
1895년 1월 10일 寶城 烏峙 : 20명(9명, 11명) 처형
1월 18일 寶城 : 11명(9명, 2명) 처형
1월 19일 長興 牛山 : 1명 생포

④ 병참부 수비병 등 (전사 456명) (포로 17명)

● 낙동병참부
10월 26일 尙州읍성전투 : 100여명 『甲午斥邪錄』 9월 30일자.

●선산병참부
10월 25일경 善山읍성전투 : 기백 명 『甲午以後日記』"死者不知幾百名 踰城而墜死者居半 而定文布率死者十五名云" 기백명이라고 한 이 표현은 상주의 예에 따라서 100명으로 헤아렸다.

● 가흥병참부
10월 14일 丹月 : 3명 체포
10월 15일 淸風 : 전사 30명
10월 16일 昆地岩 : 2명 체포
10월 18일 昆地岩 : 1명 체포
11월 3일 槐山전투 : 전사 200여명

● 개성병참부 - 스즈키(鈴木)소위
12월 15일 포로 11명 살해, 포로 2명 공사관 이송
12월 23일 海州 서부전투 : 전사 12명, 포로 9명(전사 15명, 포로 2명)

⑤ 부산 수비대 - 스즈키(鈴木) 대위 (전사 191명) (포로 30명)
11월 8일 곤양 金鰲山전투 : 전사 5명, 포로 28명
11월 11일 진주 水谷村전투 : 전사 186명, 포로 2명

4. 주요 지역 전투와 동학농민군 희생자의 집단매장지

전국 주요 전투지에서 일방적으로 학살당한 동학농민군의 유해를 집단 매장한 지역은 여

러 곳이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유해는 가족들이 수소문해서 찾아가 매장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해당 지역 관아에서 인근 마을 사람들을 시켜서 묻게 하였다. 그런 집단매장지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점검해본다.

강원도 일대의 동학농민군은 9월 이후 충청도 제천 · 청풍 등지의 세력과 연합하여 강릉관아를 점령하였는데 정선 · 평창 · 영월 · 원주 등의 남부세력이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리고 홍천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중부의 동학농민군이 마지막까지 진압군에 완강히 저항하였다.

9월 초 강릉은 충청도 제천 · 청풍 등지의 세력과 연합한 동학농민군이 읍내에 진입해서 관아를 점거하였으나 향리들이 결집해서 결성한 민보군의 기습을 받아 밀려나서 대관령을 넘어 평창으로 물러났다. 10월까지 정선과 평창은 동학농민군이 점령해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2개 중대나 파견해서 강원도 일대의 동학농민군을 탄압하였다.

홍천의 동학농민군은 경기도 지평과 양평을 거쳐 서울로 가는 길을 열려고 하였다. 이를 막은 세력이 지평의 민보군이었다. 지평민보군을 조직한 맹영재는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까지 기습해서 동학농민군을 패배시켰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주력은 일본군이었다. 후비보병 제19대대 동로군과 증파된 1개중대가 강원도를 휩쓴 후 급속히 힘을 잃게 되었다.

강원도에서 동학농민군을 제압한 세력은 강릉 민보군과 11월에 강원도 일대를 순회한 원주감영의 중군, 그리고 일본군이었다.

강원도 -
10월 5일(9월 7일) 강릉전투 : 20~30 전사
10월 21일 장야촌전투 : 30여명
10월 22일 홍천전투(서석면 자작고개) : 不知其數[7]

후비보병 제19대대 동로군

예천의 동학농민군이 군수전과 군수미를 강제로 헌납 받는 활동을 펼치자 읍내의 양반과 향리들이 집강소를 설치하고 민보군을 결성하였다. 민보군이 동학농민군을 체포해서 처형하는 등 강력히 단속을 하기에 이르자 두 세력 간 충돌이 벌어졌다.

關東包를 13군현(商北 龍宮 忠慶 醴泉 安東 豊基 榮川 尙州 咸昌 聞慶 丹陽 淸豊)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이 협의를 하고 예천 읍내를 점거하려고 시도했는데 예천의 민보군이 읍내 방어에 나섰다. 민보군은 결속하여 화지와 금곡 양쪽에서 공격해온 동학농민군을 굴머리와 양천에서 각각 맞아 싸워서 결국 승리하였다. 예천의 동학농민군은 뒤이어 들어온 일본군과 석문전투에서 패배한 후 재기하지 못하였다.

진주 일대의 수곡촌 高僧堂山은 부산에 주둔한 일본군이 기습해서 대규모 희생자가 나온 지역이다. 곤양의 안심동 금오산에서 모여있던 동학농민군을 기습한 뒤 수곡촌의 고승당산으로 직행해서 1개중대의 일본군이 공격하였다. 대구 감영과 진주병영의 병대가 합세하지 않고 일본군만 공격한 이 전투에서 많은 동학농민군이 피살되었다.

---

7) 『甲午實記』 甲午 十一月 "卽見召募官孟英在所報, 則去十月二十一日行軍, 到洪川長野村, 砲殺匪類三十餘名, 翌日, 轉向瑞石面, 則匪徒數千餘名, 揷立白旗, 結陣屯聚矣, 放銃接戰, 以丸中殺者, 不知其數, 而且有生擒諸漢, 無非愚蠢之被勒入徒者, 故詳細查覈, 一一曉諭, 歸化安業, 仍卽還來事"

경상도 -
9월 27일(8월 28일) 예천 굴머리전투 :
9월 28일(8월 29일) 예천 양천전투 : 수십인
10월 25일 선산 : 기백 명
10월 26일 상주 : 100여명
11월 8일(10월 10일)곤양 안심동 금오산 :
11월 11일(10월 13일) 진주 수곡 고승당산 : 전사 186명

동학 교주 최시형의 기포령에 의해 무장봉기한 청주 일대의 동학농민군이 청주 읍성을 전거하려고 시도했다가 여러 날 무심천을 사이에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청주에 있던 충청병영의 병대가 무심천을 넘어 반격해서 동학농민군이 패산하고 많은 희생자를 냈다.

북접농민군이 우금치전투에 참가하고 논산으로 후퇴한 후 다시 금구 원평의 구미란전투, 태인전투에서 밀린 다음 장수를 거쳐 충청도로 북상하였다. 영동 용산전투 이후 보은 북실에 들어갔던 북접농민군은 일본군과 상주 민보군에게 기습을 받아 대규모 학살사태가 벌어진다.

충청도 -
10월 15일 淸風 : 30명
10월 22일(9월 24일) 청주전투 :
11월 3일 괴산 : 전사 200여명
12월 11일 서산 : 30명 총대로 타살, 100명 포로,
12월 11일 논산 : 전사 20명
(순무선봉진등록-장위영) 시신과 머리가 눈에 걸리고 발에 채임
노성 : (등록-통위영) 포살자 익사자 300명 이상
홍성 :
공주 :
1895년
1월 13일(12월 18일) 보은 북실전투 : 390여 명 + 계곡에 쓰러진 수

전라도 지역에서 대규모로 희생된 지역은 여러 곳이다. 집단매장지 추적이 가능한 곳만 들어도 금구 원평 구미란, 태인 읍내, 나주 읍내, 장흥 부내 등을 비롯해 학살이 집중된 해남 강진 나주와 함께 보성 무안 등이 있다.

전라도 -
해남 : 250명
강진 : 320명
장흥 : 300명
나주 : 230명
보성 : 30여명 총살, 수십 명 체포
함평 무안 영암 광주 능주 담양 순창 운봉 장성 영광 무장 : 30~50명

5. 맺는 말 – 집단매장지 조사

전국 여러 지역에서 많은 동학농민군이 희생되었으나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조사한 연구도 나오지 않았다. 여러 지역의 전투에서 일방적으로 학살당한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집단매장된 지역도 조사되지 않았다. 더구나 체포된 동학농민군이 집단 처형된 후 그 유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매우 늦긴 했지만 집단매장지 조사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일시에 희생되자 각지에서 집단으로 매장할 수밖에 없었다. 집단매장지는 모두 60여 군데가 추정되는데 이는 대량 학살의 증거가 된다. 지금 이 집단매장지를 조사하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는 도시가 확장되고, 대규모 주택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옛 지형이 크게 달라졌다. 도로도 많이 늘어났다. 고속도로와 국도를 비롯 고속철도 등 도로와 철도부지로 들어가는 면적도 적지 않았다. 그러 개발지역과 도로부지에 집단매장지가 포함되면 집단매장지는 사라지게 된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농지 개량사업이다. 대개 집단매장지는 마을에서 떨어진 외진 곳에 만들어졌는데 그런 곳은 아직도 농경지와 야산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다. 하지만 농경지라고 해도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중장비를 이용해서 평탄작업을 해서 하루아침에 비탈길이나 골짜기가 평지가 되면 과수원 등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러면 지형이 바뀌고 토양이 섞여지게 되고 집단매장지의 흔적이 사라지게 된다.

예전에는 번답을 해서 논으로 만든 곳이 많았다. 논이 되면 미생물의 활동이 많아지게 되고 그 결과 유해가 분해되어 없어진다. 그럴 경우 역시 집단매장지의 흔적이 사라지게 된다.

보은 북실의 경우 집단매장지가 세 곳이 확인되었다. 한 곳은 큰 수해 때 계곡의 흙이 씻겨가서 지형이 달라졌다. 또 한 곳은 밭을 확장하면서 객토사업을 하면서 들판에 뿌려졌다. 한 곳은 시굴을 통해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아무 조처도 없이 20년 가까이 흘러가서 대추나무 농장으로 바뀌었다.

공주와 같이 대규모의 희생자가 나온 곳은 더 많은 지역에 나누어 집단매장하였을 것이지만 그런 내용을 밝히는 기초조사도 시도되지 않았다. 지금은 송장배미에 가서 갑오년의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소가 되었다.

집단매장지는 해당 지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토대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에 의거한 시굴로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흔적이 나오면 본격 발굴을 해야 된다.

유해가 발굴 수습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펼칠 사업도 미리 구상해야 한다. 116년 동안 참담한 시간을 보낸 원혼을 위로하고, 미래를 위한 정당한 선양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1.북실집단매장지 증언-뒤편 산기슭의 밭이 매장지

2.안내판 뒤가 매장지 흙을 객토한 들

원평 구미란전적지의 동학농민군 매장지 실태

최 고 원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목차

1. 머리말
2. 동학농민군 매장지의 환경과 역사적 배경
  1)주변 환경
  2)역사적 배경
3. 동학농민군 매장지 관련 자료
  1)문헌자료
  2)구전자료
4. 동학농민군 매장지 현황
  1) 매장지로 추정되는 위치
  2) 보존과 훼손의 실태
  3) 매장지의 유물
5. 맺음말
-동학농민군 매장지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 -

1. 머리말

동학농민군의 매장지에 관한 조사가 구미란전적지에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진행 된 적이 없었으므로, 추정되는 매장지의 지표면을 정확하게 측정한 사실도 없다. 이 사실을 밝혀두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행된 조사가 아니므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계속해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며, 또한 여러분의 양해가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주민들로부터 얻어진 구전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위성사진을 통해 지번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위치를 확인하였다. 개인의 소유지가 아닌 문중 소유의 임야가 대부분이어서 주민들조차 구역의 경계와 지번을 알지 못했다.

변화된 생활 속에 이미 30여 년 동안 산과 멀어진 주민들의 기억에 의지하여 지형을 확인하고 추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작업이다. 매장지 주변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매장지의 위치를 추적하여 보존과 훼손 여부를 단순하나마 육안으로 파악하였다.

전략적 요충지였던 원평 구미란 전적지에서 전투가 벌어진 시간과 정황에 대해서는 「巡撫先鋒陳謄錄」을 통해 추정해 볼 수가 있다. 대관 최영학이 1894년 12월 21일[1] 금구읍에서 교도병 1대와 일본군 1대를 거느리고 원평 구미란으로 행군을 시작한 시간은 오전 5시~7시경이다. 구미란에서 포성이 들렸던 시간은 8시 30분~9시 30분경부터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3시~5시 무렵까지였다. 전투가 벌어진 날은 일 년 중에서 낮의 시간이 가장 짧을 무렵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짧지 않은 시간의 전투가 구미란전적지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군과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화력으로 하루 동안 전투를 치룬 것이다. 그러나 희생자에 대한 기록은 매우 단편적이다.

탄환이나 포에 맞아서 희생된 자가 전혀 없었는지, 그에 관한 언급이 없다. 다만 '혹은 찌르고 혹은 목을 베어서 죽인 적이 37명'이라는 기록만 등록되어 있다는 점도 다른 전투의 경우처럼 희생자의 수가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추정되는 매장지가 여러 곳이며, 상당한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지는 주민들의 구전과 비교해도 신빙성이 적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희생자의 수를 떠나서 역사의 사실을 기리는 기념사업은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원평 구미란전적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에 비해 놓여 진 현실은 기념사업의 부끄러운 과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면 고마운 일이므로, 위치를 재확인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서 부족한 자료를 취합하였다.

2. 동학농민군 매장지의 환경과 역사적 배경

1) 주변 환경

구미란 전적지는 낮은 구미산이 북서쪽을 둘러싸고 있으며, 남동쪽으로는 들녘을 가로질러 원평천(院坪川)이 흐른다. 원평천은 국내 저수지의 효시인 벽골제의 수원(水源)으로 모악산에서 발원하여, 동진강 하구에서 바다로 합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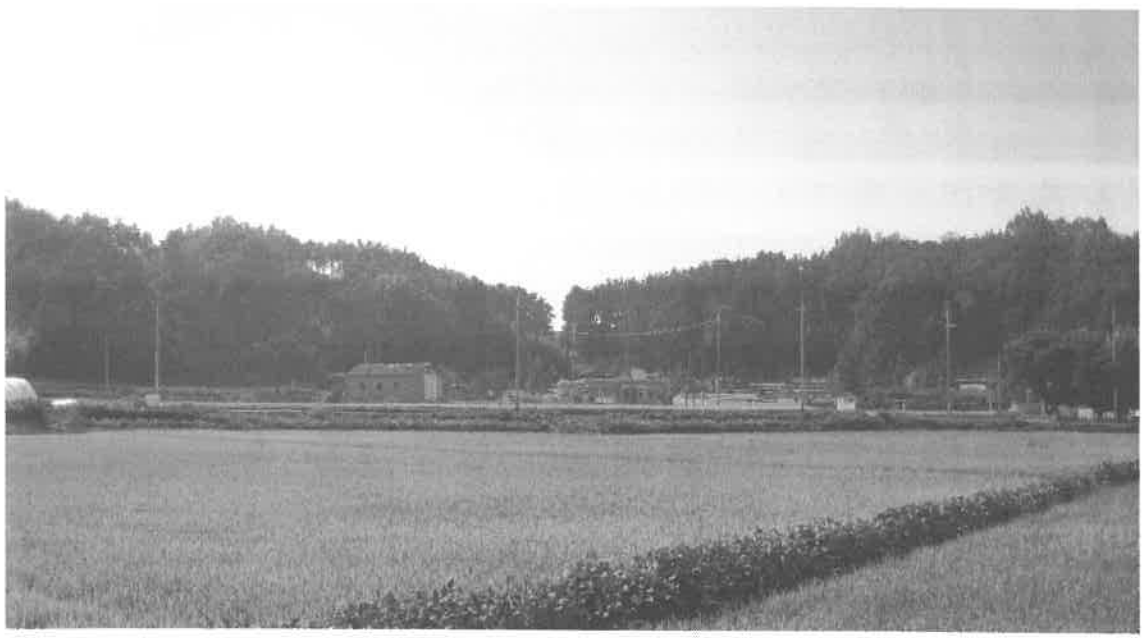
금산면은 모악산을 중심으로 완주군 · 정읍시와 경계를 이루는 산악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소재지인 원평은 전주와 한양을 가기 위해 거쳐 갔던 삼남대로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에도 국

1) 음력 11월 25일

도 제1호선이 원평을 관통하고 호남고속도로가 인접해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구미란 어귀의 정자나무거리는 원평 소(牛)시장이 서던 곳으로, 정읍시 감곡면, 태인면, 옹동면, 산내면, 산외면 그리고 완주군 구이면 방면에서 옛길로 걸어오게 되면 원평장터의 첫머리이다.

구미란(龜尾卵)은 거북의 꼬리 부분에 알을 낳은 형국이라는 데에서 명칭의 유래를 찾을 수 있고, 원평(院坪)은 역원 홍인원(弘仁院)과 들녘이 있어서 금산사의 재원을 마련하던 곳이라는 의미에서 전해졌다고 한다. 현재 구미란 전적지에는 40여 호가 구미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구미산 서쪽으로 원평장터가 닿아있어 유목 · 중원 · 학원 마을이 장터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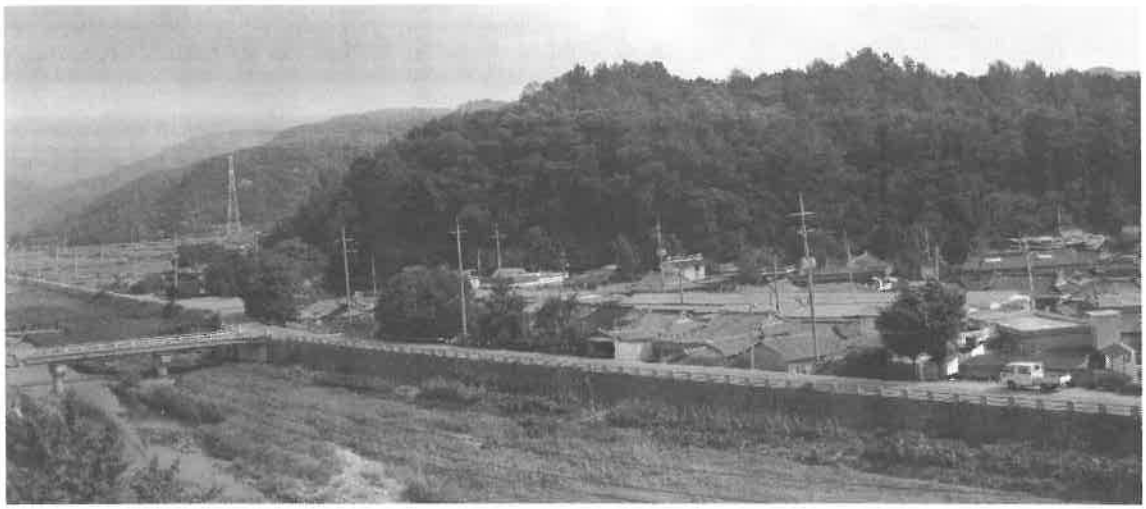
▲구미란전적지

2) 역사적 배경

미륵신앙의 본거지인 금산사가 있는 금산면 일대는, 1589년 기축옥사의 주인공인 정여립이 활동했었고, 조선 후기 참위설을 중심으로 증산사상과 더불어 신흥종교가 성행했던 곳이다.

지금도 여전히 원평 일원은 신흥종교와 더불어 4대종교의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교조신원운동 당시였던 1893년에는 전라도의 동학도들이 원평에서 집회를 가졌다. 당시의 원평은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활동근거지였으며, 그 이전에 전봉준의 성장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전봉준의 유년시절 거주지였던 정읍시 감곡면 관봉(황새믈) 마을과 전봉준의 외가인 언양김씨 세거지나 김덕명의 주거지인 용계마을 모두 구미란과 원평장터에서 1km남짓한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구미란전적지와 닿아있는 원평장터 그리고 원평천

이처럼 동학농민혁명에 있어서 원평의 중요한 배경과 구미란전적지의 의미를 원광대학교 신순철 교수와 충북대학교 신영우 교수는 각각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전봉준은 갑오년 3월 초, 고부 농민들이 해산한 이후 무장에서 재기포 하여 고창 흥덕을 거쳐 부안과 원평 태인을 거쳐 황토현 전투에서 승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다시 흥덕 고창 무장을 거쳐 영광 나주 함평까지 남하하였다가 장성전투에서 승리하고 다시 북상하여 원평을 거쳐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또한 9월 재봉기 과정에서도 공주 점령에 실패한 전봉준은 논산 전주를 거쳐 원평에 머무르다 최후 전투를 맞이하게 된다. 갑오년 전봉준의 동선을 그려보면 그 중심이 되는 지역이 곧 금구 원평이었다. 금구 원평은 동학 대접주 김덕명의 근거지라는 사실과 함께 전봉준의 보이지 않는 의지처였던 것이다.[2)]

원평은 동학농민군이 우금치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여 궤멸할 때 논산과 전주를 지나 찾아간

2) 신순철, 「갑오년 동학농민혁명과 금구 원평」, 『김제땅 동학농민혁명』,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09

근거지였다. 고부로 가지 않고 왜 원평 구미란 마을로 찾아왔을까? 그것은 손병희 통령이 이끌던 북접농민군이 우금치전투 이후에 장수 무주를 거쳐 충청도로 들어가서 황간 영동 청산을 지나 보은 장내리로 돌아간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즉, 북접농민군이 발생한 곳이 장내리였다고 하면, 호남 동학 농민군의 고향이 원평 이었던 것이다.[3)]

3. 동학농민군 매장지 관련 자료

1) 문헌자료의 내용

사운연구소,「순무선봉진등록(巡撫先鋒陳謄錄)」『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14권』,1996

1894년 11월 26일

이달 24일 미시 경에 파견한 최영학(崔永學)이 교도병 1대와 일본군 1대를 거느리고 진군하여 금구읍에 이르러 밤을 지냈습니다. 25일 묘시 경에 행군하여 나아가서 원평에 곧 도착하니 적도 수 만명이 한번 나팔을 불자 진(陣)을 삼면(三面)으로 벌여 이미 품(品)자 모양을 형성하고, 서로 천 보(步)의 거리를 두고 서로 포를 쏘며 전투를 하였습니다. 손시부터 신시에 이르기까지 포성이 우레와 같고, 탄환이 비 오듯 날아왔습니다. 적들은 산위에 있고 우리 군대는 들에 있었는데 사면으로 포위하고 함성이 땅을 흔들고 불꽃과 연기가 안개를 이루어 원근을 분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대관 최영학이 칼을 뽑아 적군을 향하여 먼저 산위로 오르며 크게 호령하며 지휘하자 동서로 나뉜 부대가 한꺼번에 힘을 써서 다투어 먼저 올라가고 혹은 찌르고 목을 베어서 죽인 적이 37명이었으며, 남은 무리는 사방으로 흩어져 각자 도망하였습니다. 산세가 가파르고 험하고 해는 이미 저물려하고, 게다가 도적들의 행색이 모이면 동학임을 알 수 있으나 흩어지면 농민의 모습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추격하여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빼앗은 군수품은 화룡총 10자루와 조총 60자루, 탄환 7섬, 화약 5궤짝, 자포(子砲)10좌, 칼과 창 200자루, 쌀 500섬, 돈 3,000냥, 면포 10동, 소 2마리, 말 11필, 연우피(鍊牛皮) 10장, 호피(虎皮)1령을 아울러 일본 주력부대에 귀속시켰습니다. 그 나머지 활, 화살, 부서진 총, 가죽 갑옷 등 긴요하지 않은 물건은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 병사와 일본 병사는 한 명도 다친 자가 없었습니다.

---

3) 신영우, 「아직도 미완인 1894년 원평의 구미란전투」,『김제땅 동학농민혁명』,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09

2) 구전자료의 내용

①손영진(1929년생,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86-3)

갑오난 때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때 다 산으로 도망갔거든, 산사람이 되었어, 나중에 이병[4]들이 동학군들 토벌하고 다녔는데 그때 우리 할아버지는 동학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데 겁이나서, 그냥 무서우니깐 숨은 거지, 머우대 속에 숨었는데 이병들이 머우대 속을 여기저기 칼로 막 쑤신게 그 때 옆구리를 찔려서 다치셨다고 허더라고, 갑오난때 동학군들이 몰살당허 다시피 해서 학수재 뒤에도 무덤들이 쌓여있었고, 바로 얼마전 일이여, 지금은 거기에 밭 만들었잖아, 귀미란에 마을 들어가는 입구 바우독골 거 가는데 있잖아, 장날에 약장사들 와서 굿하던데 거기 바로 지나서 가면 모퉁이 있지, 거기 바위가 있었는데 우리 어릴 때도 그 밑에 굴이 있었어, 동학난 때 거기다가 사람 죽은걸 그냥 쑤셔놨다고 그러드라고, 그런 얘길 노인양반들한테 듣곤 했는데 무섭고 그랬다니깐, 그니깐 그때 말야, 시체를 다 묻지도 못하고 그렇게 버려두고 그랬던가봐, 노인양반들 얘긴게 어려서 뭘 아나, 지금도 "너한테 죽을라믄 갑오년에 빈총 맞어 죽었어."라고 허잖아, 죽기도 많이 죽었던가봐....[5]

②최현식(1922년생, 정읍시 장면동 170-13)

내가 1970년도에 원평에 갔을 때 동학군들 묘가 거기 있다고 들었어, 1970년도라고 기억을 해...,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누가 그때 갑오동학혁명에 관심도 없었을 때 였는디, 마침 내가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다고, 아, 그런데 김제시가 아직도 관심을 안 두고, 그렇게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거거든, 서둘러서 더 늦기 전에 관리를 해야지....[6]

③김경자(1941년생,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641)

---

4) 吏兵(관병)
5) 2009년 6월 9일,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86-3번지에서 부인과 함께 녹취
6) 2009년 11월 전화통화 내용(수록 : 김제시,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2010)

나는 요새도 거그 가서 밭맬라믄 어쩌다가 등꼴이 오싹허고 헌디, 울엄니는 어떻게 그 밭을 다 일궜는가몰라, 내가 쪼맨 헐 때 따라 댕겼는디 돌멩이도 골라내고 정말로 억척스럽게 밭을 맹글어 갖고 져먹었어, 근디 울엄니가 글더라고, 장대헌 뼈가 나왔다고, 남자뼈라고 허더라고, 긍게 그게 다 동학난 때 죽은 사람들이라고 글더만, 알고 말도 마, 동네서 울엄니 보고는 억척스럽다고 다들 그렀어, 귀신 나오는디다가 밭맹글었다고..., 근디 그게 뭐 대수여! 아, 그리서 내가 기억허고 그러는디, 나중에 내가 인자 혼인 허고 먹고살기 힘든게 도로 친정동네로 왔잖아, 인자 그 밭을 내가 지어먹는디, 그 밭 지어먹을 때는 나도 총알은 많이 봤어, 옛날에도 있었는디, 나중에 전봇대를 심는디 땅을 판게 솔찬히 나오더만, 이맨씩 헌 것이 꼭 내손가락 이만큼만 혀(엄지손가락 반마디), 그런 것이 많허게 나왔어, 근디 어떻게 했는가도 모르겄어, 요새는 안보이데, 글고 본게 통 못 봤어, 우리 쪼맨 헐 때는 저기 올라가믄 막 주섰는디, 알고, 이럴줄알았으믄 잘 놔둘걸, 누가 그걸 간수헐줄 알았간디, 집이 아버지가 인자 동네사람들헌티 만나믄 얘기 허고헌게 중한줄 알었지, 그런 것이 중요허다고 허더만, 인자 그때서부터 보기는 유심히 보고 댕겼어도 있간디, 인자 없더라고, 내얘기는 다 끝났어, 이만치가 내가 아는 얘기여....[7]

④이옥선(1930년생,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645)

집이도 알다시피 내가 본촌네여(주민: 아, 우리가 만날 본촌댁이라고 부르지....), 귀미란이 내쌈터라고, 어리서 들으믄 저 산에 말도 못허게 사람들이 삼대 쓰러지듯이 죽어서 허연혔다고 허더라고, 동학난때 그 난리에 여기사람들이 이리도 못가고 저리도 못가고 많이 죽기도 혔다고 글더라고, 그런게 우리 클 때도 귀신들이 드글드글헌게 어둑히져서 바우독골 돌아올라믄 귀신나오고, 뭔 소리난다고 웃어른들이 옛날부터 그랬다고, 그려서 집이 아버지 때부터 동네제사 지내잖아, 못 먹고 엄동설한에 죽어서 원된다고, 밥도 많이 혀서 놓고 시루째 놓고 지내잖아, 저 뒤가 원한이 엄청 서린 곳이라드만....[8]

⑤김정관(1922년생,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662)

웃어른들이 동학군뫼라고 헌게 알고는 있어도, 옛날이 시방처럼 여자들이 나댕기고 그런 시

7) 2009년 6월 22일,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641번지에서 남편 김남근씨와 함께 녹취
8) 2009년 12월 10일, 구미마을 회관에서 마을주민 10여명과 함께 녹취

상이 아닌게, 딱딱 눈여겨 보지를 않았다고, 동네양반들도 다 알것이여, 저짝 넘어서 동학난 때 죽은 무덤이 솔찮혔어, 동네아들이 뛰놀고 그랬는디..., 모르겄어, 산에 안댕긴게, 그게 안 남은 것 같더라고,(주민들 : 없어 없어, 진작에 다 없어졌어, 거기가 개벽된지가 언제여....) 글지...,아마 못찾을거여, 그게 동학난 때 이동네가 남아 났간디? 내가 시집와서 본게 글도 최학자 집안이라고 우리시집이 제일 오래 된 집안이더라고, 우리는 대대로 살아온 집안들이고, 나머지는 다 타성받이여, 구미란최씨라고 혀서 다 같은 최씨가 아니여, 근게 다 불나버리고 집이 없어졌다고 허더만, 글도 우리는 어떻게 피난을 혔는지 어쨌는지 모르겄어, 그런 말씀들도 여자들헌티는 일체 없으셨응게....[9]

⑥최만식(1933년생, 정읍시 금붕동 내장산실버아파트 101동 505호)

저는 1933년에 태어나 1970년까지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구미란에 살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때 실정도 전혀 알 수 없고 다만 당시에 사용했던 유품, 탄환 등을 제 직접 보고 또 산에 주우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구미란 뒷산이 모두가 못살던 시절이라 민둥산으로 있었는데 납으로 만든 탄환을 여러 개 주어서 함석위에 올려놓고 녹여서 여러 모형으로 만들어 재밌게 놀았습니다. 나중에서야 동학군이 쓴 실탄인 걸 알았습니다. 그때는 동학혁명이란 용어도 몰랐습니다.
구미란 뒷산에 가면 자그마한 묘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묘지라고 불렀는데, 세(世)자 현(鉉)자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것은 동학혁명군이 전황이 불리해서 후퇴할 때 우리 일가인 최경선 선생이 그때 전봉준 장군 비서라고 했는데 피노리로 피난하면서 궤를 맡겼다고 합니다. 동학군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후일을 기약하고 피노리로 갔답니다. 다 몰살되고 전봉준 장군도 참살되고 보니 문서궤가 우리집에 보관 되었습니다. 궤 속에 창호지로 두루마리 뭉치가 가득했는데 어린 제가 봐도 옛날 종이지만 좋은 종이었습니다. 명필인듯한 글씨가 많이 써있었습니다. 당시엔 그게 불온문서여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중간생략) 그때 그것을 소중하게 보관하지 못해서 후회스럽습니다.[10]

⑦최순봉(1935년생,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644)

9) 2009년 12월 10일, 구미마을 회관에서 마을주민 10여명과 함께 녹취
10) 2009년 11월 20일, 지병으로 대화가 불편한 증언자가 자필로 기록한 편지내용의 일부

우리 큰아버지가 솔찬히 유식한 양반이었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큰아버지 나이는 모르겠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차이가 부모님만치 많이 나고, 우리아버지는 젤로 막둥이고 그래, 전라남도서 살다가 이리로 왔는데 그게 다 동학 허는 사람들 따라 댕기느라 그랬다고 그래, 큰아버지가 글도 잘 알고 공부도 많이 헌 양반인데 꼭 그런데만 따라 댕기고 그랬다고 그래, 그 난리 났을 때는 이집 저집 도망댕기고 그때 막 그랬다고 그래, 뒷산에 시체는 어떻게 묻었는가는 못 들었는데 시체가 산에 하얀 했다고 그랬어, 긍게 우리가 귀미란에 언제 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전라남도에서 와가지고, 이리로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나도 친정동네서 사는 거야.[11]

⑧천금술(1937년생,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667)

뒷산에서 납탄들 많이 주섰지, 최종기, 이순만 그 사람들도 이젠 죽고 없는디, 그런거 쪼만헐 때 주스러 댕겼어, 원평 넘나드는 골짝 있잖아, 비가 많이 오믄 황토흙이 패여서 납탄이 훤히 뵈면 그때들 줍고 그랬어, 뚱글뚱글 헌 것도 있고, 꼭 은행알 큰놈만치 생겼당게, 큰사람 인지손가락 한마디만치 긴 것도 있고 헌디, 긴 것은 뒤에가 푹 들어가 있고 그랬어, 이순만이는 그거 주서다가 즈그 아버지가 그거 녹여서 저울추도 만들었당게, 내가 여나믄살 먹었을 때여, 나보다 한 살 어린디도 많이도 주웠은게 저울에 다는 추도 만들고 헌거여, 인자 우리는 충청도서 할아버지가 울아버지 열세살 때 죽어서 여기저기 많이 떠돌았지, 글다가 인제 여기 와서 사는 거여, 동학난때 얘기들 들어 보믄, 산에 죽은 시체를 사방에서 까마구랑 까치가 막 쫓아 먹고 개가 뜯고 댕기고 그랬다드만, 근게 냄새나고 헌게 동네사람들이 묻었디야, 내가 언제 주서다 논 납탄이 있었는디 한번은 찾은 게 없드라고, 글고 산에 제사 지내는디 말여, 거기 옆에 골짝에다가 젤로 많이 갖다가 묻었다던디, 인자 골짝이 어떻게 됐는가도 모르겄어, 근게 납탄이 젤로 많이 나온디가 우리가 시방 밭 져먹는디 거그여, 내가 거그서 젤로 많이 봤어....[12]

4. 동학농민군 매장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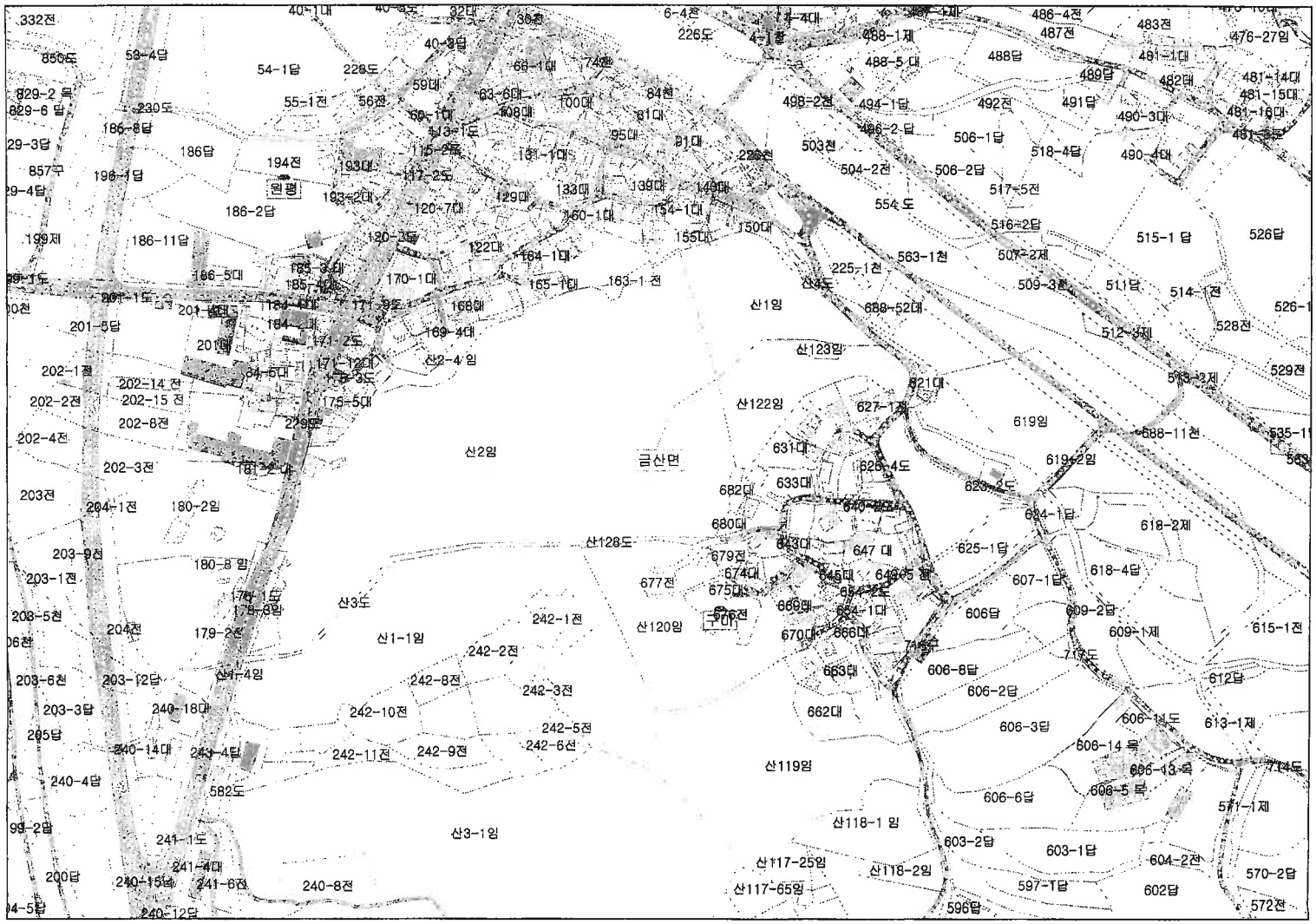
11) 2009년 12월 10일, 구미마을 회관에서 마을주민 10여명과 함께 녹취
12) 2009년 12월 9일, 구미마을 회관에서 부인 김성매씨와 함께 녹취

1) 매장지로 추정되는 위치

매장지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현재는 주민들의 구전에 의해 추정될 뿐이다. 한 구역이 아닌 여러 구역으로 추정되고 있는 매장지는 구미란전적지 구미산과 원평리 학수재가 있는 땡메산에 분포한다. 지형과 지목의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미 훼손된 매장지를 찾아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래의 위치는 주민들로부터 확인한 매장지를 인공위성의 사진을 통해서 비슷한 위치를 찾아 표시하여 추적한 위치이며, 측량 또는 다른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인 된 위치가 아님을 밝혀두고자 한다.

①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산 121임
②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산 122임
③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산 119임
④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627-1전
⑤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80-3
⑥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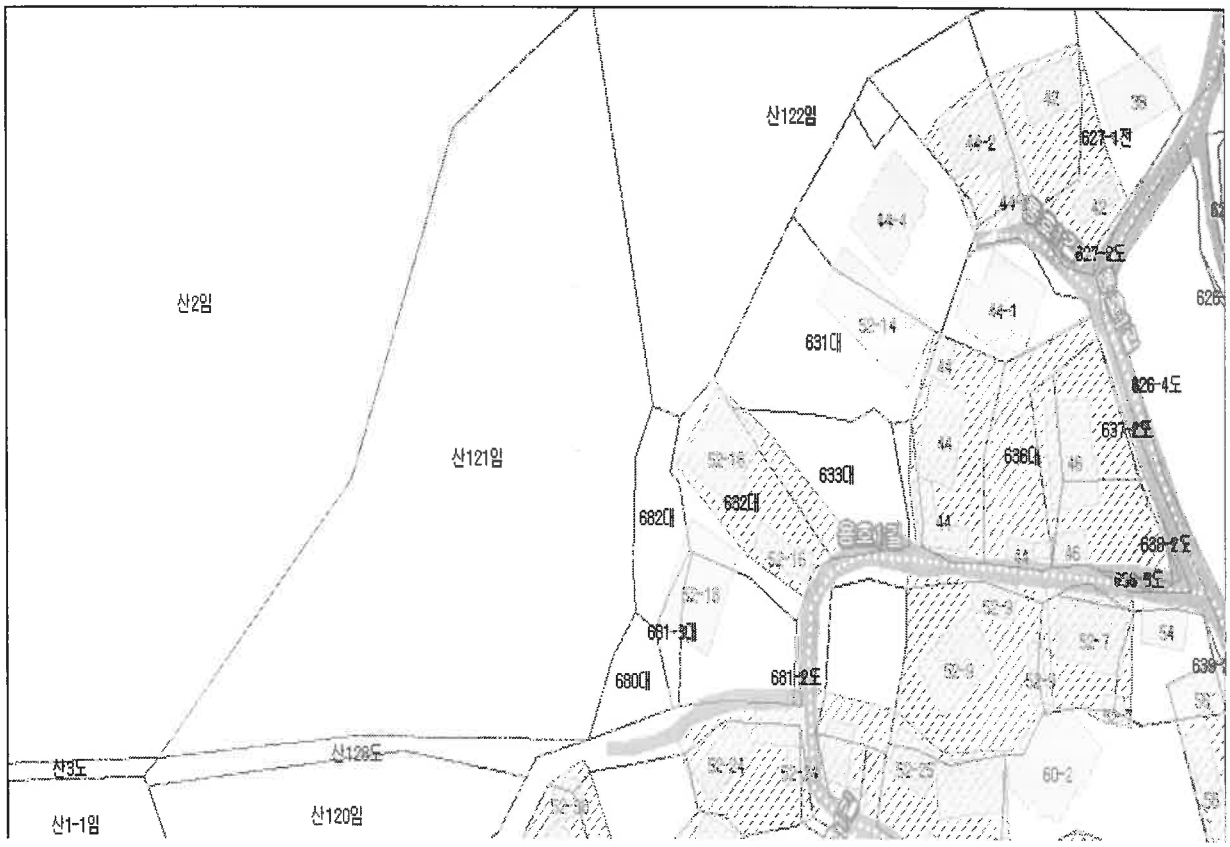
용호리 산 121 임야의 경우처럼, 주민의 관심과 위령제의 명맥을 통해서 위치가 지속적으로 확인된 곳과, 지리적 위치의 특성상 주민들의 잦은 왕래로 환경 변화의 과정이 계속 목격되어진 원평리 180-3, 180-8번지는 다행히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 추정되는 매장지는 주민들의 기억과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환경이 바뀌면서 현장의 답사만으로 매장지의 흔적을 엿볼 수는 없었다.


원평
금산면
산1임
산2임
산3-1임
산1-1임
산1-4임
산2-4 임
산3도
산123임
산122임
산128도
산120임
산119임
산118-1 임
산118-2임
산117-25임
산117-65임
54-1답
228도
55-1전
56전
59대
60-1대
63-6대
68대
74전
84전
81대
95대
91대
100대
226전
503전
498-2전
494-1답
492전
491답
488-5 대
488답
487전
486-4전
483전
491-1대
489답
482대
481-14대
481-15대
481-16대
490-3대
490-4대
506-1답
506-2답
504-2전
517-5전
554 도
516-2답
518-4답
515-1 답
526답
507-2제
509-3전
511답
514-1전
512-3제
528전
529전
563-1천
225-1천
688-52대
621대
627-1제
619임
631대
633대
682대
680대
679전
677전
674대
675대
669대
670대
666대
654-1대
654-2도
645대
640-5 답
647 대
626-4도
623-2도
624-1답
625-1답
607-1답
606답
606-8답
606-2답
606-3답
606-6답
603-2답
603-1답
597-1답
596답
602답
604-2전
570-2답
572전
618-2제
618-4답
609-2답
609-1제
615-1전
612답
613-1제
606-1도
606-14 목
606-13 목
606-5 목
571-1제
714도
717도
663대
662대
242-1전
242-2전
242-3전
242-5전
242-6선
242-8전
242-9전
242-10전
242-11전
240-18대
240-14대
240-4답
240-15대
240-8전
240-12답
241-1도
241-4대
241-6전
582도
203-12답
203-3답
203-6천
203-9전
203-1전
203-5천
204-1전
204전
205답
200답
202-1전
202-2전
202-4전
202-3전
202-14 전
202-15 전
202-8전
201-1도
201-5답
201대
199제
199-1도
198-1답
196-1답
194전
193대
193-2대
192-2도
186-8답
186답
186-2답
186-11답
186-5대
185-3대
185-4대
184-4대
184-2대
180-2임
180-8 임
179-2선
179-1도
178-8임
176-1도
175-5대
171-12대
171-9도
171-2도
170-1대
169-4대
168대
165-1대
164-1대
163-1 전
160-1대
155대
154-1대
150대
149대
139대
133대
129대
122대
120-3도
120-7대
115-2도
113-1도
112-2도
111-1대
108대
100대
69-1대
40-3답
40-1대
32대
36전
6-4천
226도
4-1전
4-4대
829-2 목
829-6 답
857주
29-3답
29-4답
99-1도
0천
202-1전
202-2전
202-4전
203전
203-9전
203-1전
203-5천
06천
203-6천
203-3답
205답
240-4답
99-2답
04-5답
332전
850도
53-4답
230도
186-8답
186답
857주
196-1답
29-4답
199제
186-11답
186-5대
201-1도
201-5답
202-1전
202-14 전
202-15 전
202-8전
202-4전
202-3전
203전
204-1전
180-2임
203-9전
203-1전
180-8 임
203-5천
204전
179-2선
203-6천
203-12답
203-3답
205답
240-14대
240-4답
582도
241-1도
241-4대
200답
240-15대
241-6전
240-12답
240-8전
242-1전
242-2전
242-3전
242-5전
242-6선
242-8전
242-9전
242-10전
242-11전
240-18대
240-14대
240-8전
203-1전
203-5천
203-6천
203-3답
205답
240-4답
582도
203-12답
204전
179-2선
180-8 임
180-2임
203-9전
203-1전
203-5천
204-1전
203전
202-1전
202-2전
202-4전
202-3전
202-14 전
202-15 전
202-8전
201-1도
201-5답
201대
199제
199-1도
198-1답
196-1답
194전
193대
193-2대
192-2도
186-8답
186답
186-2답
186-11답
186-5대
185-3대
185-4대
184-4대
184-2대
179-1도
178-8임
176-1도
175-5대
171-12대
171-9도
171-2도
170-1대
169-4대
168대
165-1대
164-1대
163-1 전
160-1대
155대
154-1대
150대
149대
139대
133대
129대
122대
120-3도
120-7대
115-2도
113-1도
112-2도
111-1대
108대
100대
69-1대
40-3답
40-1대
32대
36전
6-4천
226도
4-1전
4-4대
829-2 목
829-6 답
857주
29-3답
29-4답
99-1도
0천

2) 보존과 훼손의 실태

①보존된 묘역

용호리 산 121 임야 일대는 원평 구미란 전적지에서 동학농민군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봉분의 형태가 희미하게 남아 있어 매장지의 위치가 확인되는 유일한 구역이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20여기의 봉분도 이제는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힘들다. 2009년 2월에 형태가 확인 되는 봉분마다 숫자가 적힌 표지목을 심어놓았는데 현재 15개의 표지목이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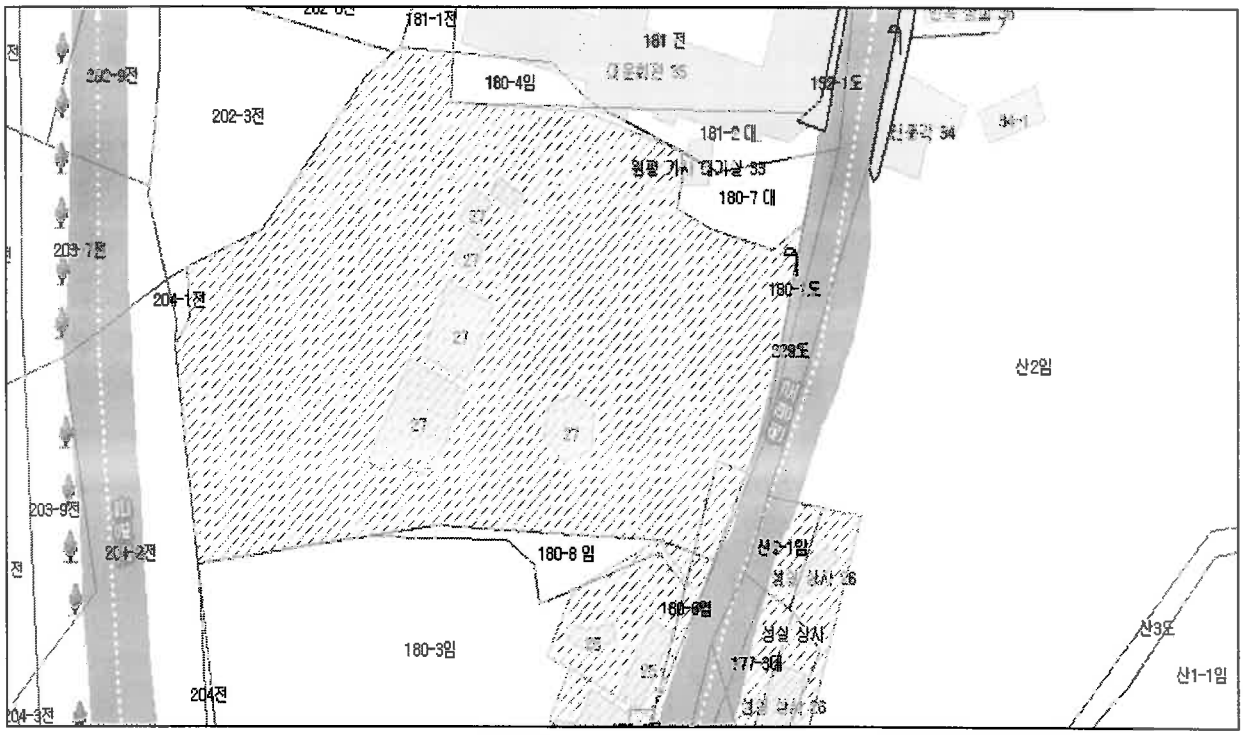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산121번지 임야 일대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산121번지 임야 일대의 표지목 작업

②훼손된 매장지

학수재[13]가 있는 땡메산은 일제시대에 국도 1호선이 땡메산을 관통하도록 개설되면서 구미산의 일부가 분리된 형태이다. 동학농민군의 매장지로 추정되었던 이 구역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밝혀져 있지 않으며, 다만 주민들에 의하면 '솔찬히' '많이' '겁나게' 등의 표현으로 언급되어 오고 있다. 주변의 변화와 맞물려서 단계적으로 훼손되어 온 이 구역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남아있던 10여기의 공동무덤도 사라지고 오디나무 밭으로 변모하였다.

13) 노인들의 모임인 영락회의 시설물(원평리 180-2임)이며, 김덕명과 광복군 이종희 등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경내 위령각에는 이름 없는 동학농민군을 비롯해 금산면 출신 애국지사들의 위패를 모셔놓았으며, 매년 10월 15일에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학수재 주변 :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80-3번지, 180-8번지

3) 유물

▲구미산에서 발견된 탄환 (소유자: 최태영)

위 사진은 구미산에서 발견된 탄환이며, 아래 내용은 전쟁기념관 기획홍보부 박재광 교육팀장으로 부터 2010년도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를 통해 검토된 내용이다.

- 김제 구미산에서 발견된 탄환은 기본적으로 6.25전쟁이 아닌 구한말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음
- 다만 당시의 서양 · 일본에서 들여온 화기들의 탄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미비한 관계로 당시의 동학군이 사용했는지, 아니면 조선 관군 내지는 일본군이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임
- 19세기 중반부터 각국의 군대는 이전의 탄환과는 성능이 뛰어난 신형의 미니에 탄환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탄환은 미니에탄과 형태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당시 사용되었던 화기의 종류가 매우 많고, 우리나라에 들여 온 화기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음
- 결론적으로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사용되었던 무기류에 대한 역사적 사료 부족으로 인해 탄환의 정확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었지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6.25 한국전쟁 당시에 사용된 탄환은 아니며, 더불어 현대 화기에서 사용된 탄환이 아닌 것으로 판단
- 따라서 구미산에서 발견된 탄환은 최소한 1950년대 이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당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14)]

5. 맺음말

- 동학농민군 매장지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 -

누구나 구미란전적지의 동학농민군 매장지 관리 방안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면, 보통의 경우 어느 지역의 매장문화재 발굴과 마찬가지로 그 수순의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원평 구미란전적지에 대한 사전 지표조사를 시행하고, 매장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구역에 대해 시굴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은 시굴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전체 발굴의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생략하고 근거와 증거 없이 관리되고 보존 될 가능성은 지금의 현실에서 희박하다.

---

14) 김제시,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 83쪽, 2010

김제시의 경우처럼 경제적인 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지방에서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시설이나 유적지에 대해 보존 관리를 위한 예산을 따로 편성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중요 유적지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사적지로 지정받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우선 우려되는 한 가지는 구미란전적지가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터전이며, 추정되는 매장지도 마을에 인접해있다는 점이다. 매장문화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이곳 주민들에게도 불편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된다면 진정한 기념사업의 의미는 상실될 수도 있다. 주민들에게도 유익할 수 있는 기념사업의 기본 방향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구미란전적지의 관리 보존까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역사적 사실을 기리는 기념사업이 성과물 사업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며 논의되어야 할 주제이다. 김제시가 2010년도 5월 3일에 제정한 '김제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구미란전적지 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이상적인 대안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오는 12월 21일은 17회째 맞이하는 원평 구미란전투 희생자를 위한 추모의 날이다. 구미란전적지의 동학농민군 매장지에 대해 다함께 주목하고 있는 이 기회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위령제를 지내온 구미마을 주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동학농민군 유해발굴의 추진현황과 의미

우 종 윤
한국선사문화연구원장

< 차 례 >

Ⅰ. 머리말
Ⅱ. 동학농민군 유해발굴의 추진현황
1. 충북 보은 북실 유해 집단매장지 조사
2. 경북 문경 석달동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채홍우 분묘 발굴
3. 강원도 홍천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유해발굴
4. 김개남장군 추정 분묘 발굴
1)발굴조사 추진배경과 목적
2)김개남장군 추정분묘의 조사방법과 조사방향
3)조사내용 및 결과
Ⅲ. 유해발굴의 절차와 단계별 조사내용
Ⅳ. 유해발굴의 의미 및 제언

Ⅰ. 머리말

동학농민혁명은 자주적인 근대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농민들의 생명을 무릅쓴 몸부림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동학농민군들이 희생되어 조선 전역을 피로 물들였으며, 희생된 유해들은 전국에 산재하여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 유해매장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축적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동학농민혁명 발발 110주년이던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117호) 제8조(기념사업)에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함으로서, 유해매장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발굴조사를 위한 법적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적 사건의 주체인 동학농민군 유해발굴은 전국적으로 4건 만이 진행된 상태이어서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동학농민군 유해발굴은 비록 사건의 역사적 배경은 다르다 하여도 6.25 전사자 유해발굴(2000년~현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유해발굴(2007~2009년), 제주 4.3 희생자 유해발굴(2006~2007년, 1단계) 등 현대사 과정에서 발생된 특정 사건별로 추진된

유해발굴과도 크게 대비된다. 이들 유해발굴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고고학·역사학·인류학·사회학·법의학 등 여러 학문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유해발굴을 통한 화해와 상생,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확인, 교육·연구·전시자료의 확보, 선양사업의 방향제시 등의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따라서 동학농민군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 및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전국적인 유해매장지 기초조사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유해발굴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체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동학농민군 유해발굴의 추진현황과 의의를 정리하고, 유해발굴의 절차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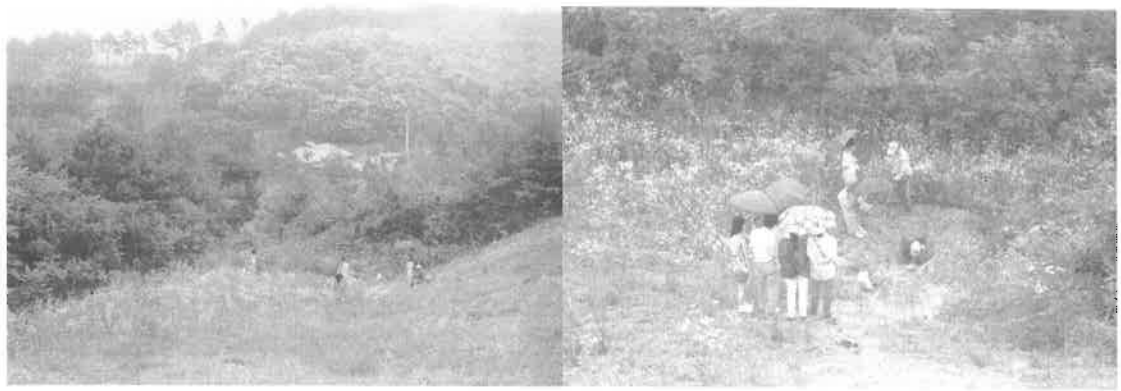
Ⅱ. 동학농민군 유해발굴의 추진현황

1. 충북 보은 북실 유해 집단매장지 조사

충북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북실은 1894년 12월 17일 동학농민혁명군과 일본군, 상주 소모영 유격병대가 전투를 벌였던 동학교단의 최후 전투지로서 12월 17일~12월 18일 이틀 동안의 전투에서 약 2,60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 희생된 유해들은 여러 증언과 현지조사를 통해 작은가마실골, 덕다리골, 산5-1번지 능선 골짜기, 안양마을 첫 번째 골짜기 등 4곳에 집단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곳은 1993년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에서 보은 북실전투 및 관련유적과 집단매장지 조사의 일환으로 집단매장지로 추정되는 5개 지점에서 소규모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집단매장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인 유해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토양시료의 인(P) 함유 분석결과 0.15~0.4%와 0.4~0.8%의 인산이 함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2] 이러한 분석결과와 증언내용을 바탕으로 안양마을 동쪽 첫 번째 골짜기가 보은 북실전투와 고한련한 동학농민군 희생자 집단매장지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3]

1) 申榮祐, 1993.「東學農民戰爭期의 報恩 일대와 북실戰鬪」『報恩 鍾谷里 東學遺蹟-북실전투 및 관련유적과 집단매장지 조사-』(忠北大學校 湖西文化硏究所·報恩郡), 70.
2) 이영남, 1993.「동학교도 집단매장지로 추정되는 곳의 토양분석」『報恩 鍾谷里 東學遺蹟-북실전투 및 관련유적과 집단매장지 조사-』(忠北大學校 湖西文化硏究所·報恩郡), 83~84.
3)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硏究所·報恩郡, 1993.『報恩 鍾谷 東學遺蹟』, 34~35.



[사진 1] 보은 북실 안양마을 집단매장지 시굴조사 모습

따라서 이곳의 집단매장지는 지형변화에 따른 훼손이 이루어지기 전에 체계적인 유해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집단 희생과 매장의 흔적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집단매장이 확인되면 추모공간 조성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간단한 시굴조사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동학농민군 집단매장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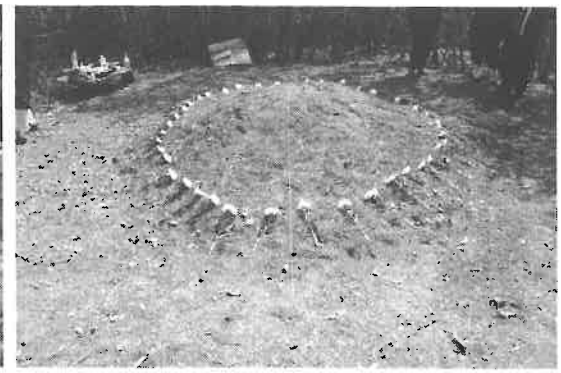
2. 경북 문경 석달동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채홍우 분묘 발굴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의 주월산(舟越山) 능선 사면부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채홍우의 넋이 깃든 분묘(가묘)를 2004년 3월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 하였다[4]. 채홍우는 인천채씨로 조선 철종 8년(1857)에 태어났으며, 37세때인 1894년 여름에 동네의 동지들인 채성우·황기용과 함께 봉기의 대열에 참여하여 마을을 떠났으나 끝내 돌아오지 못하였다. 1894년 8월 28일 예천읍내의 한천에서 보수집강소의 군사들과 농민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채홍우는 이 한천전투에서 희생되어 한천 모래밭 부근 어딘가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후손들은 유해를 찾지못함에 따라 가묘를 만들고 8월 28일을 기일로 삼아 제사를 지내고 있다. 분묘에는 평소에 채홍우가 사용하던 밥사발에 고인의 이름을 써 넣어 유해를 대신하여 묻었다는 이야기가 후손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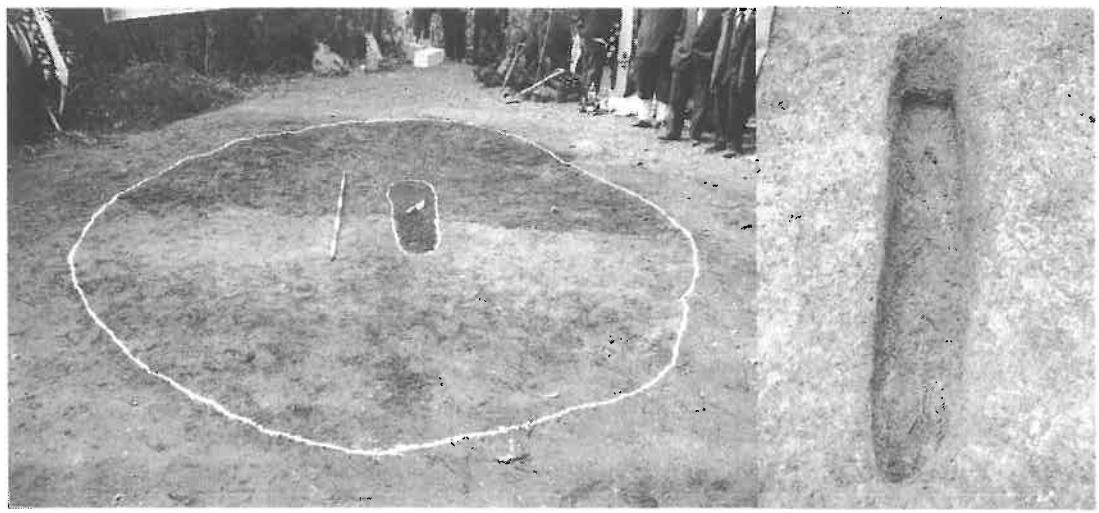
채홍우 분묘 발굴조사는 분묘의 구조를 파악하고, 분묘에 유해 대신 묻었다는 밥사발의 존재여부 확인 및 조사과정에서 수습되는 자료-밥사발과 흙[靈土], 기타 출토품 등-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전시하여 교육 연구자료로 삼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학술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실시하였다.

4) 禹鍾允·孫明洙, 2004. 「東學農民革命 參與者 채홍우님의 墳墓調査」 『聞慶 石達洞 東學農民革命 有功者 蔡洪禹님 靈顯 奉安式 墳墓調査 報告書』(忠北大學校 博物館), 5~23.

[사진 2] 추모제 모습



[사진3] 분묘 헌화



[사진 4] 봉토 제거 후 노출된 묘광 및 묘광내부 나뭇가지 출토모습

채홍우의 분묘(가묘)는 능선 정상부의 완만한 경사면을 평탄작업하여 묘역을 조성하였으나 묘역은 좁은 편이다. 묘역의 중심부에 분묘를 조성하였는데 봉분의 규모는 남-북 5m, 동-서 4m로 타원형태이며 봉분 높이는 65cm이고 방향은 북동방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대체로 직교한다. 분묘조사는 4분법으로 조사하고자 구획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봉분 중앙부 바닥면에서 묘광 윤곽선 일부가 확인됨에 따라 토층을 확인하고 2분법으로 조사방법을 바꾸어 조사하였다.

묘광은 봉분의 중심부에서 북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노출되었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말각 세장방형태로 일단식 묘광구조를 띠며 바닥면은 붉은색 점토를 편평하게 정지하였을 뿐 특별한 시설은 없었다. 묘광 규모는 길이 138cm, 너비 35~18cm, 깊이 25cm로 머리쪽으로 추정되는 북쪽이 넓고 남쪽이 좁은 형태이다. 이러한 묘광 규모는 봉분에 비해 매우 작은 편이고, 또한 어른의 유해를 매장하기에는 불가능한 규모이다. 묘광 내부에서 후손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밥사발은 출토되지 않았고, 바닥면 중앙에서 묘광 길이방향으로 놓여진 나뭇가지만이 출토되었다. 나뭇가지는 부분적으로 부식되었으나 한가지로 길이 97cm이며, 4개의 샛가지가 나 있다. 샛가지는 지름 0.5~1.0cm로 길이 5~8cm를 남기고 잘라내어 마치 마람 인(人)자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샛가지가 갈라져 나오는 부분을 발쪽인 남쪽을 향하도록 묻었음이 주목된다. 이는 동학농민 봉기의 대열에 참여하여 한천전투에서 희생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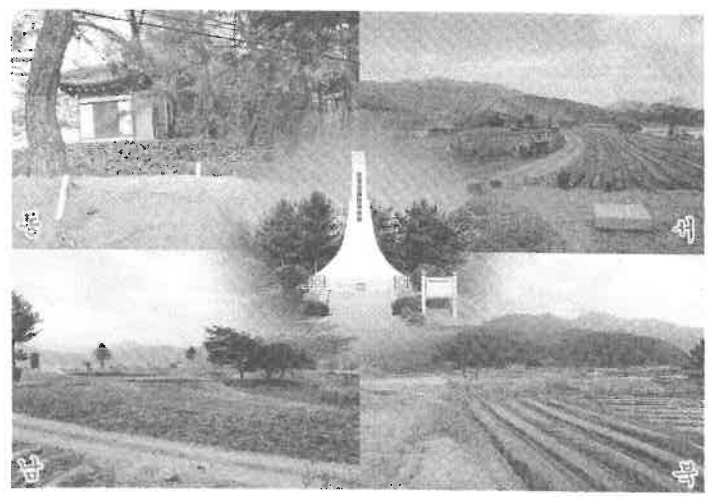
으나 유해를 찾지못하자, 후손들이 가묘를 조성하고 유해 대신 사람의 형상을 띤 나뭇가지를 잘라 묻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나뭇가지는 유해를 상징하며, 당초부터 유해 대용으로 나뭇가지를 묻기위해 묘광을 의도적으로 세장하게 파고 분묘를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묘역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였으나 다른 구조물 흔적이나 유품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토양분석결과 묘광 내부의 토양은 묘역 조성시 파냈던 구릉지의 일반토양을 사용하였음이 밝혀졌고[5], 묘광 내부 바닥면에서 출토된 나뭇가지의 수종은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는 대표적인 나무인 소나무로 식별되었다.[6]

이 채홍우님 분묘 발굴조사는 2004년 2월 9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동학농민군 분묘에 대해 유족회,유가족,학술기관,지역주민, 언론기관 등이 뜻을 함께하여 학술적 목적을 갖고 고고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분석하여, 동학농민군 유해발굴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3. 강원도 홍천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유해발굴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의 전투유적지는 강원도의 동학농민군이 사회개혁과 일본세력의 축출을 목표로 봉기하여 생명을 무릅쓰고 분투 노력한 현장으로서 근대화와 반일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이다.[7] 특히 홍천군 서석면 자작고개에서 벌어진 1894년 10월 21일~22일 전투는 강원도의 봉기 상황으로 볼 때 가장 격렬했던 시기에 벌어진 격전으로서, 이 전투에서 약 800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희생자는 자작고개 일대 구릉에 매장하였다는 증언과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곳 풍암리 동학혁명전적지는 1977년 강원도 기념물 제25호로 지정되었으며, 1978년 7월 6일 풍암리 자작고개에 동학혁명군 위령탑이 건립되었다.



[사진 5] 홍천 풍암리 전적지 유해발굴지

풍암리 전투유적지 유해 발굴조사는 "동학혁명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2004년에 홍천군에서는 "홍천 풍암리 동학혁명군전적지 성역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전과 문헌에서 거론되는 이곳 전투지에 대한 유해 발굴조사를 통해 그 역사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

5) 김주용·남욱현, 200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채홍우 분묘 토양의 유기지화학 분석 예비고찰」『聞慶 石達洞 東學農民革命 有功者 蔡洪禹님 靈顯 奉安式 墳墓調査 報告書』(忠北大學校 博物館),75~78.

6) 박원규·이기성, 200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채홍우 분묘 출토 목재소편의 수종분석」『聞慶 石達洞 東學農民革命 有功者 蔡洪禹님 靈顯 奉安式 墳墓調査 報告書』(忠北大學校 博物館),79~83.

7) 신영우, 2006.「강원도 홍천군 서석면의 동학농민군과 풍암리 전투」『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유해발굴』(강원도 홍천군·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 43~66.

유해발굴은 2005~2006년 서석면사무소 뒤쪽 진등이라 불리는 구릉일대에서 동학혁명기념탑 주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에서 조사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지형환경의 심한 변화로 추정 집단매장지에서 희생자의 유해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유해의 잔존물로 추정되는 지층과 매장지로 추정되는 구렁의 흔적을 발견하여 구전과 문헌에서 거론되는 이 일대가 전투지로서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이며 집단매장지일 가능성을 고고학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8)]

4. 김개남장군 추정 분묘 발굴

1)발굴조사 추진배경과 목적

김개남(金開南, 1853~1894년)은 동학의 태인대접주(泰仁大接主)로 전봉준(全琫準), 손화중(孫化中)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3대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1890년경 동학에 입도하여 1891년 접주가 되었으며, 1894년 제1차 봉기가 일어나자 전봉준을 동도대장(東徒大將)으로 추대하고 손화중과 함께 총관령(總管領)이 되어 동학농민군을 지휘하였다. 그러나 1984년 12월 27일 태인에서 체포되어 전주로 압송된 뒤 전라감사 이도재의 심문을 받은 뒤 1894년 12월 29일 처형되었고, 그의 수급(首級)은 서울로 이송되었다.

그동안 김개남 장군의 유해매장과 관련하여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 구체적인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9년 3월 25일 임실문화원 최성미 원장이 임실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창립일 인사말에서 여러 사람의 증언에 근거하여 '김개남 장군의 분묘가 임실군 운암면 학암리에 있다'고 공개 언급함으로써 새로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후 임실문화원장을 비롯하여 유족·제보자·유족회·전문연구자·방송관계자 등이 김개남 장군 추정 분묘를 여러 차례 현장답사하여 제보자 증언의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김개남 장군 유해발굴추진위원회(대표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를 구성하여 발굴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유해 발굴조사는 2010년 8월 24일~8월 26일(1차), 2010년 10월 15일~10월 16일(2차) 등 2차례에 걸쳐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하였다[9)].

[사진 6] 개토제 모습

이번 조사에서는 김개남 장군의 분묘로 추정되는 지점을 고고학적인 조사방법으로 정밀하게 조사하여 분묘의 구조와 특징파악, 묘광 내 유해 및 유품의 잔존여부 확인 등을 통

8) 박선주 외, 2006.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유해발굴』(강원도 홍천군·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 1~27.

9) 忠北大學校 博物館·東學農民革命遺族會, 2010. 『東學農民革命指導者 金開南 將軍 推定 墳墓 發掘調査 報告書』(調査報告 第117冊).

해 김개남 장군 추정 분묘의 성격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로서 당시 큰 지도력을 발휘하였던 김개남 장군이 효수된 지 116년 만에 이루어진 유해 발굴조사는 그동안 구전되어 오던 추정 분묘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조사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유해 발굴조사 결과 유해 및 유품이 출토될 경우 신원확인과 역사자료로의 활용, 김개남 장군 분묘 성역화 사업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김개남장군 추정분묘의 조사방법과 조사방향

김개남 장군의 추정 분묘는 전북 임실군 운암면 학암리 산162번지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동북-서남으로 뻗은 노령산맥 산줄기의 가지능선들이 임실군 전체를 감싸듯 뻗어내리고, 그 사이로 섬진강의 본류와 지류가 흐르면서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김개남 장군 추정 분묘는 백이산에서 북쪽으로 뻗어내린 가지능선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조사지역 주변은 300~400m의 높은 산지로 둘러쌓여 있고, 남쪽으로 직선거리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김개남 장군의 처가가 있던 성밭[城田]마을(현 임실군 청웅면 향교리)이 있다. 따라서 전주에서 처형당한 김개남 장군의 시신을 처가가 있는 성밭마을로 가는 길에 매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개남 장군 추정 분묘조사는 봉분이 불규칙한 원형 형태를 이루며, 낮은 도도록한 모습을 띠고 있고 규모도 작은 편이나 분묘 조성방법 및 토층상태, 묘광구조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고고학적 조사방법인 4분법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봉분 정상부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봉분을 포함하여 주변 평탄면까지 발굴범위로 설정하여 4분할 구획한 후 봉분의 대각선 방향인 북서부분과 남동부분의 봉토부터 층위적으로 제거하면서 봉토 조성과정을 밝히고 묘광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면서 발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반암까지 발굴한 후 토층실측, 사진촬영 등 발굴과정을 정밀하게 기록으로 남긴 후 나머지 봉토부분을 제거하여 평면상 전체적으로 기반암을 노출시켜 인위적인 굴착흔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 김개남 장군 추정 분묘에 대한 발굴조사는 다음과 같은 조사방향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첫째, 김개남 장군이 처형된 후 115년 만에(2009년) 구전으로 분묘의 존재 사실이 알려졌는데, 구전적 내용과 제보자의 증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발굴조사를 통해 밝히고,

둘째, 유해가 출토될 경우 인류학적 조사로 성별, 나이, 신장 등 신체적 특징을 밝히며,

셋째, 유전자(DNA)분석을 실시하여 신원확인 및 유해의 보존관리 방안을 수립하며,

넷째, 유품이 출토될 경우 유형별 분석 및 보존처리하여 향후 교육·연구자료로서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다섯째, 발굴대상 분묘가 김개남 장군의 분묘로 확인될 경우 문화재지정, 기념 조형물 조성, 묘역 성역화 작업 등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3)조사내용 및 결과

김개남장군 추정 분묘 조사는 1차(2010년 8월 24~8월 26일)· 2차(2010년 10월 15일~10월 16일)에 걸쳐 3개 지점을 발굴조사 하였다.

[사진 7] 조사지역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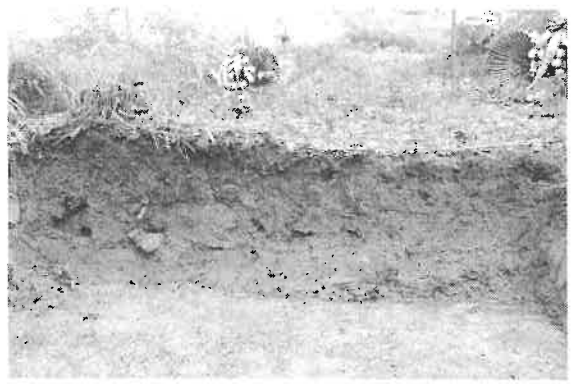
(1) I 지점 조사

I 지점은 제보자(박옥기·배○○님)가 "선대로부터 이 분묘가 김개남 장군의 분묘이다"라는 구전적 내용을 상세하게 증언하였고, 현지 답사시에도 망설임 없이 이 분묘를 가르켜 신뢰성을 가졌으며, 제보자와 함께 후손,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임실문화원, 동학 전공학자 등이 여러 차례 현지 답사를 실시하여 이 분묘가 김개남 장군의 분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발굴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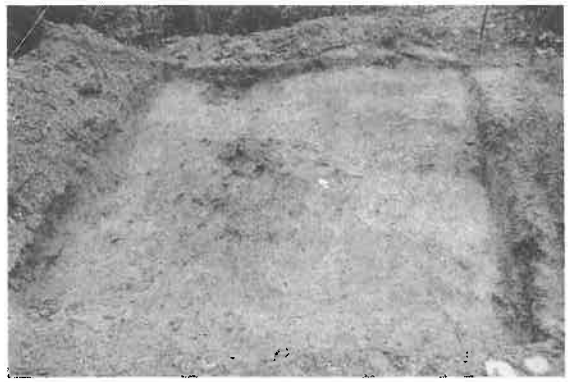
추정 분묘는 능선 정상부(398.1m)에서 비교적 완만하게 남사면부로 이어지는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다. 봉분은 평면형태가 불규칙한 원형 모습으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며, 규모는 남-북 2.5m · 동-서 2.6m, 높이는 20~30cm 정도로 평탄한 주변보다 약간 도도록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 이 추정 분묘의 남동쪽에 바로 인접하여 능선 정성부에 최근 조성한 배진현 부부 쌍분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민묘 조성시 이 일대의 지형은 일정부분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진 8] 조사전 모습

[사진 9] 추정분묘 조사중 전경



[사진 10] 토층 모습(동남단면)



[사진 11] 조사완료 후 전경

그런데 김개남 장군이 처형된 시기가 1894년 12월 29일이고,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한 시기도 한 겨울철인 점을 고려할 때 일정 규모로 묘광을 파고 묘역을 조성하는 등의 정상적인 매장절차에 의해 매장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으로, 유해 매장 또한 깊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겨울철이라 시신을 깊게 묻지 못하여 팔다리가 밖으로 나와 있었다." 라는 구전적 내용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추정 분묘는 고고학적 조사방법인 4분법으로 조사대상 범위를 3.5×3.5m로 구획한 후 표토층부터 기반암까지 층위적으로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하였다. 봉토 정상부에서 기반암까지의 최대 깊이는 약 60cm이며, 토층 퇴적양상은 색조와 구성물질에서 차이를 보일 뿐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수평퇴적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토층상에서 인위적인 굴광 흔적 및 유기물 흔적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전면 노출한 기반암도 약간의 굴곡진 자연면 상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을 뿐 인위적 굴광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로 보면 김개남 장군 추정 분묘는 봉분의 토층 및 기반암에서 매장을 위한 인위적 흔적이 찾아지지 않아 구전적 내용에 부합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토층상태로 볼 때 발굴지점은 자연지형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Ⅱ·Ⅲ지점 조사

2차 조사지점은 1차 조사지점에서 동쪽으로 9m 정도 떨어졌으며, 능선 정상부에서 남사면으로 이어지는 경계지점에 위치하나 1차 조사지점보다는 약간 낮은 지점에 해당한다. 이곳은 비교적 경사가 급한 지점으로 남동-북서 방향으로 뻗어내린 능선이 조사지점의 능선 정상부를 기점으로 북쪽과 서쪽으로 나뉘는 분기점에 해당하는데, 조사지점은 남동-북서 방향의 능선과 서쪽으로 갈라지는 능선 사이의 활모양의 지형구조를 띠고 있다.

[사진 12] Ⅱ·Ⅲ지점 조사전 모습

[사진 13] Ⅱ지점 조사완료 후 전경

[사진 14] Ⅱ지점 조사완료 후 전경

활처럼 벌어진 지형의 가운데에 직경 1.6m, 높이 20cm로 원형형태를 띠는 봉분으로 추정되는 것을 2차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능선 사면부에 작은 규모로 약간 도도록한 형태로 남아 있어 언뜻 인위적 조성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현 상태로 볼 때 추정 봉분의 방향은 등고선 방향과는 직교한다.

조사방법은 1차 조사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추정 봉분을 중심으로 3.7×3.7m범위를 설정하여 구획한 후 추정 봉분의 대각선 방향으로 북동 부분과 남서 부분의 봉토를 층위적으로 발굴하면서 토층변화 및 유기물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면서 조사하였으며, 이후 능선 정상부 쪽으로 2m 확장조사 하였다. 추정 봉토의 정상부에서 생토면까지의 최대 깊

이는 약 60cm이다.

전반적으로 추정 봉분의 토층구성과 퇴적양상은 Ⅰ지점과 동일하다. 토층상에서 인위적인 굴광 흔적 및 유기물 흔적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능선 경사면을 따라 노출된 기반암에서도 자연면 상태를 보이고 있을 뿐 인위적 굴광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2차 추가 조사한 추정 봉분은 분묘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차 조사에서는 Ⅰ지점과 Ⅱ지점 사이에 길이 4.8m·너비 1.6m의 트렌치를 설정하여(Ⅲ지점), 퇴적 양상 및 매장 시설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토층의 두께는 20cm 내외로 얕으며, 퇴적양상은 Ⅰ·Ⅱ지점의 퇴적양상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트렌치 동쪽 가장자리 부분은 구지표면 위로 갈색·명갈색 사질점토가 재퇴적되어 있고, 트렌치 중앙 부분은 갈색 사질점토층이 삭토된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퇴적양상은 금번 조사지역에 바로 인접하여 있는 민묘(배진현 부부 묘) 조성시 능선 정상부를 정지작업하는 과정에서 삭토 및 재퇴적된 결과로 판단되며, 최근 민묘 조성시 주변지형이 일정부분 변화되었고 이러한 지형변화는 유해 발굴지점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트렌치 조사에서도 인위적 굴광흔적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발굴지점에서 유해 및 유해 매장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제보자의 구체적인 증언내용에 신뢰를 둔다면 다음과 같은 원인을 찾은 수 있겠다.

첫째, 유해발굴 대상범위가 매우 한정적이었다는 점이다.

제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어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봉분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대한 매우 제한된 범위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증언은 구전적인 내용임으로 특정 지점으로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며, 이 주변의 보다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유해 매장시기의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김개남 장군의 유해가 매장되었던 시기는 한겨울이고 동학농민혁명으로 인한 긴박했던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일반적인 매장절차에 충실하여 매장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그럼으로 유해는 완전한 묘광을 조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매장 형태로 매장되었을 가능성이다. 이는 "봉분에 팔다리가 나와 있었다."라는 구전을 통해서도 깊게 매장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후 매장부가 노출·유실되었을 가능성과 최근 인접지점에 들어선 민묘 조성과정에서 이 일대의 지형변화와 함께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능선 정상부와 남사면의 경계부분에 해당하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조사가 진행되었고, 능선 날등부가 예로부터 산길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지점 일대의 완만한 지형에 분묘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민묘를 조성한 지점을 제외하고는 지형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으로 이 일대에 김개남 장군 분묘가 있다면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보자의 증언내용에 신뢰를 갖고 앞으로 능선상의 나무들이 벌목된 이후에 이

번 발굴지점을 중심으로 보다 넓은 범위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김개남 장군의 분묘를 확인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연속적인 유해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Ⅲ. 유해발굴의 절차와 단계별 조사내용

동학농민군의 유해매장지에 대한 기록은 전무한 상태임으로 전투지와 구전적 내용에 의존하여 매장지를 추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동학농민군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 및 현장답사 등 기초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유해발굴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유해발굴지 선정기준은 동학농민군 전투지와의 관련성, 지형변화 등으로 인한 유해발굴의 시급성, 유해의 집단매장 가능성, 관련 유가족·지자체·지역민 및 언론의 관심도, 추후 유해발굴의 정형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유해매장지의 발굴조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과정을 거쳐 진행한다.

① 1단계 : 유해매장지 기초조사 및 발굴대상지 확정

유가족, 관련자, 지역주민의 구술증언과 각종 자료의 분석 및 현장 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굴대상지와 범위를 확정한다. 아울러 분묘 개장공고, 토지 소유주의 동의, 나무벌채 허가 등 발굴조사를 위해 선행적으로 행정적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② 2단계 : 유해발굴 설명회 개최

유해발굴의 일정, 발굴방법, 유해 및 유품 발굴시의 처리방안, 기타 유해발굴과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 등에 대해 유족,지역주민,지자체,관련단체 등에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갖고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③ 3단계 : 유해발굴 및 감식,분석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유해발굴은 발굴지역 정지작업→개토제→발굴대상지의 성격에 따른 고고학적인 분할 구획→탐색 트렌치 설치 →제토 및 층서적 발굴작업→유해매장 흔적 확인(묘광, 구덩이)→유해 및 유품 노출→단계별 정밀한 기록작성(사진,도면)→유해 및 유품 수습→고고학적/역사학적/인류학적/사회학적 분석 등 일련의 작업을 진행한다. 현장에서의 유해발굴조사 완료단계에 현장을 공개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발굴성과를 설명하고, 유해발굴지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④ 4단계 : DNA 샘플채취 및 검사

유해가 출토될 경우 신원확인을 위해 유가족의 존재여부, 발굴된 유해의 보존상태, 유가족 연고 주장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DNA 검사의 실시기준을 마련한 후 DNA샘플 채취 및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유품이 출토될 경우에는 유품의 재질,형태,기능,보존상태 등을 분류하여 정리한 후 보존처리 여부를 판단한다.

⑤ 5단계 : 유해 발굴자료에 대한 정리

유해 발굴과정에 대한 기록,사진,도면 등의 자료와 유해 및 유품에 대한 체계적·과학적인 분류와 분석, 정리작업을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유해발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해

석을 위해 출토자료를 선별하여 인문학적, 자연과학적 분석을 실시한다.

⑥ 6단계 : 유해 발굴보고서 작성

유해발굴 내용에 대해 종합적인 발굴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⑦ 7단계 : 유해·유품의 활용방안 수립 및 이관

유해발굴 과정에서 수습된 유해 및 유품에 대한 교육·연구·전시 및 선양사업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관련단체(기관)과 협의하고, 해당 단체(기관)에 이관하여 항구적으로 보존관리토록 한다.

⑧ 8단계 : 학술회의 개최

유해발굴과 관련한 각 학문분야의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동학농민군 유해발굴의 당위성과 의미에 대해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학술회의 개최가 바람직하다.

Ⅳ. 유해발굴의 의미 및 제언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희생된 유해는 희생된 지 11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확한 매장지를 확인하고 발굴을 통해 유해를 찾아 그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 그럼에도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여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고, 신원을 확인하여 희생자의 유해를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하다. 또한 유해는 당시의 역사와 문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사 및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이해하는데에도 필요한 정보를 여러 측면에서 제공해 준다. 유해의 뼈대나 이빨에 남겨진 질병이나 외상에 대한 병리학적 분석을 통해 개인 또는 집단의 영양 및 건강상태를 알 수 있고, 유전자분석을 통해 신원확인과 희생자와 유가족과의 관계 복원도 가능하다. 더불어 유해는 각종 기록과 역사적·과학적 증거 자료들을 통해 동학농민군 희생자의 유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유해 발굴을 통해 축적된 자료들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연구 및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유해발굴은 기본적으로 고고학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나 그밖에 역사학적·인류학적·해부학적 지식이 필요하며, 유해 발굴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의 변화와 제보자·지역민들의 다양한 증언과 구전에 의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할 수 있는 사회학적 시각과 접근법이 요구된다.

동학농민군 유해발굴은 기존의 조사사례가 4건에 불과해 거의 전무한 실정임으로 이론적,방법론적인 체계정립 및 동학농민군 유해발굴의 정형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관련 지식 및 연구성과가 축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동학농민군 유해발굴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해가 확인될 경우 유해발굴지를 보존하고 재구성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지 1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하고 전국의

산야에 쓸쓸히 매장되어 있는 역사적 희생자로서의 동학농민군 유해의 영혼이 편안하기를 바란다.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주소록

(2010. 8. 31 현재)

지역	단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 화 FAX	설립 년도
서울(2)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정남기	서울 종로구 익선동 30-6 운현신화타워 (우.110-340) B102호	02-737-1894 02-732-1894	1994
	동학혁명계승사업회	김동철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1209호 (우.110-775)	02-723-1894 02-732-1894	2004
전북(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영석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8 (우.580-833)	063-538-2894 063-538-2893	2010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조광환	전북 정읍시 연지동 39-6 (우.580-805)(donghak.or.kr)	063-533-9182 063-537-2944	1967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영호	전북 전주시 경원동 1가 106 기업은행 4층 (우.560-021)(donghak.ne.kr)	063-232-1894 063-232-1895	1992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강수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고창군청(우.585-700)	063-560-2220 063-560-2792	1994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김남용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산내마을(우.579-934)	063-582-2075	1994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민교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산 71-1 (우.565-804)	063-291-2058 063-263-6544	1998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한병옥	전북 남원시 동충동226-3 (구역전 한일빌딩2층)	063-633-6662 063-632-6660	2004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김석태	전북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20-5 (우.576-961)	063-543-1894 063-543-1893	2007
	(사)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	김동길	전북 정읍시 이평면 평령리 59 (우. 580-842)	063-534-1079	2009
전남광주(4)	함평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노금노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59 (우.525-803)	061-320-3536 061-322-3443	1993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상식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35-9 309호 (우.502-200)	062-363-6373 062-222-9708	1994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박형덕	전남 장흥군 용산면 인암리 748-1 (우.529-861)	061-862-5020 061-862-9908	2004
	강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김종용	전남 강진군 강진읍 송전리 화전마을 (우.527-804)	061-433-3194	2004
충북(3)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김태종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충북개발연구원 (우.380-955)	043-220-4381 043-252-0116	2007
	보은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김성장	충북 보은군 장신리 86 삶결두레아사달 (우.376-805)	043-542-5421	2001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구왕회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54-23 (우.376-803)	043-544-1400 043-544-1401	1996
충남(4)	(사)동학농민전쟁 우금치기념사업회	조동길	충남 공주시 중학동 136-7 (우.314-070)(woogeumti.net)	041-856-7742	1994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배광모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구 318-1 (우.357-901)	041-675-5228 041-674-0228	1998
	(사)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동복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주공아파트 106-1501 (우.312-703)	041-754-6529 041-754-6529	2000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박종서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336 (우.340-803)	041-335-0475 041-335-0476	2006
경북(2)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강효일	경북 상주시 남성동 12 (우.742-010)	054-535-2421 054-534-3690	1994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황화섭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22 황치과의원 (우.757-803)	054-655-9297	1996
강원(1)	서석동학혁명추모사업회	이양훈	강원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489-8 서석면사무소 (우.250-835)	033-433-4031 033-433-0075	1998

2010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학술발표회

동학농민혁명 희생자 유해 발굴과 집단매장지 조사

주최 :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일시 : 2010년 12월17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전주 역사 박물관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1205호
전화 : 02)723-1894 팩스 : 070-7545